

Style 조선일보 Wedding

AUGUST 2012 vol.79

front
STORY
2012 F/W
웨딩 주얼리
컬렉션



Celebrating
The World's Greatest Love Stories
Since 1837

TIFFANY & Co.

LEGENDARY FOR 175 YEARS

BVLGARI



Bridal at Bulgari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 영등포점 경기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대구점 부산본점 광주점 울산점 센텀시티
갤러리아백화점 EAST점 · 현대백화점 목동점





Style Wedding

조선일보 AUGUST 2012 vol.79



06 **INSIGHT**

10 **SELECTION**

12 **GROOM'S LOOK** 요즘엔 좋은 슈트 하나를 장만해 결혼식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세련된 예복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클래식한 슈트를 선택하고, 프린트와 컬러를 입은 셔츠와 타이틀을 매치할 것.

14 **A SEASIDE ROMANCE** 푸른 바다와 흰 구름 그리고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해변가에서 로맨틱한 축제가 펼쳐진다. 여기, 프랑스 시골 해변가에서 올린 작은 결혼식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하고, 여름 태양처럼 강렬한 웨딩을 위한 인스피레이션을 선사한다.

16 **LOVE FOREVER** '결혼'이라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영원을 약속한 두 사람에게, 언제나 처음을 기억하도록 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26 **SNOW WHITE** 허리를 꼭 조이는 코르셋, 화사한 빛이 스며들게 하는 섬세한 레이스와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주얼리까지. 신부가 꿈꾸는 모든 순간을 담은, 시처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컬렉션.

34 **THE GREATEST LOVE STORY** 1백75년 전인 1837년, 펜시 문구점으로 시작한 티파니는 오늘날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이자 웨딩 링의 대명사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35 **WEDDING ATTIRE** 정통 이탈리아 클래식 남성복 브랜드 빨 잘레리가 다가오는 F/W 시즌을 위한 세련된 슈트를 선보인다.

36 **EXOTIC GLAM** 신부의 혼수 중 필수 품목이 되어버린 명품 가방. 남들과는 다른 럭셔리 백을 원한다면 차별화된 디자인과 강렬한 컬러, 혁신적인 피니싱 기법이 돋보이는 이그조틱 레더 브랜드 질리아니(ZAGLIANI)를 선택하라.

38 **BEST WEDDING THINGS** 여기,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베스트 아이템을 소개한다.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플라워 장식에서 트렌디한 웨딩 슈즈까지. 인생의 첫출발을 더욱 빛나게 해줄 웨딩 컬렉션의 모든 것.

41 **URBAN CLASSIC** 뉴욕 소호의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백악관까지 입성할 정도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MGBW는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도회적인 스타일을 지닌 동시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감성, 사 용하기 편리한 실용의 미학 등 삼박자를 갖췄다.

42 **DREAM DECO** 올가을 리빙 트렌드는 극도의 심플함과 눈부신 화려함이 공존한다. 2012 F/W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위한 특별한 컬렉션.

46 **SMART RESORT WEDDING**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결혼식, 그래서 인생을 살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결혼식 날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결혼식은 없는 것일까? 여기 유니크하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결혼식을 올린 한 컷을 소개한다.

48 **RELAIS & CHÂTEAUX HONEYMOON** 고성아 빛어내는 고풍스러운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하는 풍요로움, 여기에 현대적인 안락함까지 가미된 곳.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지를 열망하는 연인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설정이 아닐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우아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환상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50 **BRIDAL BEAUTY** 간편한 수면 팩부터 어려 보이는 페이스 라인을 가꿔줄 세럼, 가슴을 탄력 있게 케어할 펄링 로션, 새하얀 치아를 책임질 미백제까지, 성스러운 그날의 여주인공이 될 신부를 위해 빠르고 집중적인 효과를 선사할 인스턴트 뷰티 케어 아이템.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올해로 창립 1백75주년을 맞은 티파니를 대표하는 '티파니 세팅' 링이다.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결혼반지의 시초가 된 티파니 세팅은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6개의 프롱이 리본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7-9488

Style 조선일보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희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홍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BOUCHERON

PARIS



QUATRE COLLECTION

Black Edition

FIRST JEWELER OF THE PLACE VENDÔME*

SEOUL : GALLERIA LUXURY HALL EAST | LOTTE AVENUE | SHINSEGAE GANGNAM
+02 543 6523 | www.boucheron.com

*In 1893, Frédéric Boucheron is the first of the great contemporary jewelers to open a Boutique on the Place Vendôme



ONLY FOR YOU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머금은 웨딩 링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미꽃 모티브 웨딩 링 5백28만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제션 링 5백46만원 모두 **피아제**,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문구로 새긴 옐로 골드 웨딩 밴드 1백70만원대, 클래식한 디자인의 솔리테어 링 1.15캐럿 기준 3천9백만원대 모두 **드비어스**, 깃털 장식 타이타리에서 영감을 받은 조세핀 컬렉션 이그레드 링 1천40만원 **쇼메**, 클로버 모티브의 찬스 오브 러브 링 0.2캐럿 기준 2백만원대 **모브생**, 초콜릿 모티브의 볼드한 링 가격 미정, 해바라기처럼 보이는 링 가격 미정 모두 **쇼파드**,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라우슈 원 링 2천만원대 **루시에**, 날아갈 듯 가벼운 꽃송이의 모아 에메뜨와 링 0.25캐럿 기준 3백만원대 **모브생**, 대담한 'X' 모티브 세팅의 라랑 프리미에 핑크 골드 링 3백40만원 **쇼메**, 에디터 **배미진**



디자이너의 감성이 담긴 웨딩 컬렉션

패션을 사랑하는 신부를 위한 매력적인 소식이 있다. 바로 디자이너 아르마니가 국내에서 웨딩 부케와 꽃 장식, 특별히 제작한 담례품 세트를 선보이는 것. 먼저 일반적인 웨딩 부케와는 격이 다른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선보이는 아르마니의 웨딩 부케는 국내에 선보이기에 앞서 홍콩과 두바이에 선보여 높은 관심을 얻었다. 디자이너 특유의 미니멀하면서도 정갈한 컬러 배색과 유려한 곡선을 살린 부케에 오닉스, 자개, 대리석 등 최상급 화기를 사용해 보석 같은 플라워 데코를 완성한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부케는 물론 결혼식장 전체를 아르마니의 감성으로 우아하게 꾸밀 수 있게 된 것. 아르마니가 직접 디자인한 담례품은 구성부터 굉장히 매력적인데, 흔한 담례품에서 벗어나 잼과 꿀, 마롱글라세, 차, 초콜릿까지 고품격 디저트를 모두 담았다. 아르마니 돌체(Armani Dolci)의 모든 제품은 순수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고 모든 재료는 최상품 원료만을 사용했다. 초콜릿 바는 전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최고급 카키오를 블렌드해 사용했고, 프렐린과 마롱글라세에 사용하는 헤이즐넛, 밤 등은 최상급 건과류 생산지인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생산한 것으로 만든다. 신부의 남다른 감각을 뽐내고 싶다면 디자이너의 섬세한 터치로 완성한 아르마니 까시의 도움을 받아볼 것. 문의 02-540-3094 에디터 **배미진**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FIND YOUR PERFECT RING

합리적인 가격에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의 하이 퀄리티 웨딩 링을 찾고 있다면 골드듀에서 제안하는 웨딩 링 컬렉션을 주목하라. 골드듀의 대표 웨딩 링인 '아르노'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아르노 강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선호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0.30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인 링과 멜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서브 링으로 선보이는데 2개의 링을 함께 매치하면 볼륨감이 살아난다. 이와 함께 심플한 밴드 형태의 남성 아르노 링이 구성되어 있어 커플 링으로도 안성맞춤이다(웨딩 링 0.30캐럿 기준 2백32만원, 남녀 커플 링 각 1백8만원).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찾는다면 솔리테어 링인 '블레싱 듀'를 눈여겨볼 것. 4개의 프롱을 연결하는 이슬 형태의 마운트 속에 0.01캐럿의 멜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다(0.50캐럿 기준 5백50만원대). 다이아를 부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의 링이 로망이라면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의 비엔나 '신브루' 공전을 모티브로 한 '신브루'가 제격이다.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이터너티 스타일로 세팅해 우아한 느낌이 돋보인다(가격 미정). 에디터 **권유진**



WELL-MADE CARD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페셜 청첩장을 원한다면 맞춤 제작 전문 브랜드에 노크해보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첩장에 신랑과 신부 사진을 넣거나 라본 매듭으로 장식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골드나 실버 컬러로 포인트를 준 클래식한 스타일이나, 입체 동화책을 엮듯 종이, 스탬프를 이용해 꽃, 이나설 등을 종이접기 느낌으로 연출한 핸드메이드 디자인도 사랑받는다.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래식한 문양이 돋보이는 이나설 청첩장,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카드 모두 **예랑카드**, 꽃 일러스트가 로맨틱한 맞춤 청첩장 **스콜인디페이퍼**, 매듭 장식과 입체 로고가 눈길을 끄는 화이트 청첩장 **예랑카드**.



주얼리 하우스에서 다양한 웨딩 서비스를 만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예물을 선택해야 한다면 주얼리 하우스에서 제안하는 맞춤 상담은 물론, 덤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웨딩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먼저 까르띠에에서는 예물 선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전문 컨설턴트의 1:1 상담으로 예물과 다이아몬드 링, 예물 위치 선택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며, 까르띠에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프러포즈 전이라면 '프러포즈 이벤트'가 제격이다. 0.7캐럿 이상 링을 구매할 고객에 한해 캔들라이트와 꽃가루로 장식한 VIP룸에서 프러포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모든 서비스는 청담동 까르띠에 매장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잊지 말 것. 티파니는 가을 시즌을 위한 '브라이덜 페어'를 진행한다. 티파니의 다양한 웨딩 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맞춤 예물 상담도 가능하다. 전국 백화점 티파니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된다. 타사키에서는 2세트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브랜드에서 특별 제작한 주얼리함을 증정하며, 결혼식에서 착용할 수 있는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타이타리를 대여할 예정이다. 오메가는 청담 부티크에 한해 3천만원 이상 구매 시 레스토랑 디너 쿠폰을 제공하며, 구매 후 2년 이내 폴리싱 1회를 무료로 제공하니 참고할 것. 에디터 **이예진**



TASAKI

BRIDAL

Hyundai Apgujeong 02.3438.6023 Hyundai Daegu 053.245.2247 Shinsegae Main 02.310.1854 Shinsegae Gangnam 02.3479.1232

www.tasaki.co.kr @ 2012



1



2

1 로맨틱한 입술 모티브가 새겨진 수
 남 케이스 33만원 **포르나세티 by 10 꼬르소 꼬
 모**, 2 도트 패턴의 실크 보타이 7만8천원 **브룩스 브라더
 스**, 3 소중한 순간을 담은 부엉이 모티브 액자 87만원 **소파드**,
 4 니켈로 도금 처리한 세이빙 세트 33만2천원 **펜할리곤스**, 5 총 2개
 량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화려한 커피스 링크 2천2백만원대 **해리 윈스턴**,
 6 화이트와 블랙 골드의 조화가 모던한 퀴르르 블랙 에디션 링 6백만원대 **부
 웨론**, 7 클래식한 블랙 텍시도, 화이트 셔츠, 보타이와 커머밴드, 행커처프 각
 3백만원대, 60만원대, 30만원대, 1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나**, 8 소가죽
 으로 트리밍한 럭셔리 와인 케이스 68만원 **고아드**, 9 따뜻한 우디 향에 싱그러운
 시트러스 향과 플로럴 향을 더해 클래식하고 세련된 향을 완성한 34번가 생제르
 망 향수, 50ml, 14만5천원 **딤티크**, 10 송이자가죽으로 만든 블루 컬러 카드 케
 이스 38만원 **키톤**, 11 예물의 품격을 높여줄 시계 케이스 39만원 **오메가**, 12 브
 랜드의 아이콘인 탱크 위치를 새롭게 재해석한 화이트 골드 탱크 앙글레즈 M
 6천5백만원대 **까르띠에**, 13 매끈한 라인의 소가죽 드레스 슈즈 90
 만원대 **에르메네질도 제나**.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브룩스
 브라더스** 02-547-8883 **소파드** 02-
 6905-3390 **펜할리곤스** 02-6905-
 3512 **해리 윈스턴** 02-540-1356 **부
 웨론** 02-543-6523 **에르메네질도
 제나** 02-2106-5325 **고아드** 02-
 3448-4778 **딤티크** 02-514-
 5167 **키톤** 02-6905-3787
오메가 02-511-5797
까르띠에 1566-
 7277



3



4



5



7

for bridegroom Selection

아름다운 신부를 뒷받침해줄 신랑의 스타일 역시 결혼식의 꽃이다. 그 누구보다 멋진
 신랑을 위한 품격 있고 클래식한 웨딩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8



9



10



11



12



13

Chaise longue in oak
and Clémence
Mobilier bull calfskin,
Matières collection.
Cashmere blanket bordered
with velours velvet goatskin.

에르메스 코리아
02-544-7722
Hermes.com

Publicis EtNouveau



HERMÈS
PARIS

TIME ON YOUR SIDE





for bride Selection

눈부시게 새하얀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의 품격을 높여줄 주얼리, 애프터 파티를 위한 이브닝 아이템까지, 아름다운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웨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1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와 작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번갈아가며 세팅한 그레이스 티아라 가격 미정 **티파니**. **2** 우아한 아바모티브를 재해석한 아바 모바일 드롭 이어링 3천만원대 **부쉐론**. **3** 파이톤 소재가 럭셔리한 클러치 가격 미정 **랄프로렌**. **4** 태피터 실크로 만든 입체적인 꽃잎 디테일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1천5백만원 **오스카 드 라 렌타 by 소유**. **5** 웨딩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화이트 브래지어 27만원(세트 상품) **베라 왕 포 피델리아**. **6** 단아하고 우아한 신부에게 추천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플로럴 계열의 아르테미시아 향수. 50ml, 19만원대 **펜할리곤스**. **7** 원석으로 장식한 실버 브로치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8** 진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로맨틱한 스타일의 선글라스 90만원대 **샤넬**. **9** 스와로브스키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한 샌들 1백90만원대 **파치오티**. **10** 고풍적인 무드를 연출해줄 크리스탈 장식의 이브닝 클러치 4백75만원 **랑방**. **11** 베젤에 스노 세팅한 다이아 장식이 아름다운 코-엑시얼 무브먼트 레이디마터 워치 4천만원대 **오메가**. **12** 주얼리, 워치 등 예물을 수납할 수 있는 송아지가죽 소재의 수납 케이스 5천만원대 **루이비통**. **13** 1캐럿의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서브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마르멜로 링 가격 미정 **골든듀**.

티파니 02-547-9488 **부쉐론** 02-543-6523
랄프로렌 02-545-8200 **소유** 02-541-7077
베라 왕 070-8666-0277 **펜할리곤스** 02-6905-3512 **보테가 베네타** 02-515-2717
샤넬 02-546-0228 **파치오티** 02-545-8757 **랑방** 02-6905-3582
오메가 02-511-5797 **루이비통** 02-3444-1727 **골든듀** 02-3415-5713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



Golden dew

전국 66개 골든듀 매장 | 대표전화 02.3415.5700 청담본점 02.511.1250 www.goldendew.com

롯데백화점 31개점, 현대백화점 13개점, 신세계백화점 10개점, 갤러리아백화점 4개점, AK플라자 5개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1개점, 디큐브거제백화점 1개점

GROOM'S Look

요즘엔 좋은 수트 하나를 장만해 결혼식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세련된 예복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클래식한 수트를 선택하고, 프린트와 컬러를 입은 셔츠와 타이를 매치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예복 선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예복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턱시도와 언미복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식당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수트가 각광받는 것. 기본적으로 몸의 선을 잘 살리면서 단정하고도 간결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선호도가 높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예식인 만큼 클래식한 수트를 선택하되, 타이나 보타이, 행거치프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젊은 신랑이라면 폴 스미스의 색다른 스타일링에 귀 기울여도 좋다. “수트와 톤을 맞춘 잔잔한 꽃무늬나 체크 프린트 셔츠로 위트를 더하는 것은 어떨까요? 셔츠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보타이나 행거치프를 모노톤으로 선택하면 단정하게 마무리됩니다.” 폴 스미스 MD팀 서정현 차장의 설명이다. 과감한 스타일링을 즐기는 남성이라면 블루 톤 수트에 블루 컬러의 옥스퍼드 레이시업 슈즈를 신어 화려하게 연출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제나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의 매니저는 다른 의견도 제시한다. “패턴이 있는 수트나 셔츠 등 신랑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룩을 제안하지만, 예복으로 선택하는 수트는 거의 블랙과 네이비 컬러, 화이트 셔츠입니다.” 결국 보수적이거나 튀는 걸 싫어하는 대부분의 남성이 기본적인 스타일만 고집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패턴에 수트와 같은 컬러가 들어가거나 도톰한 질감이 느껴지는 타이를 추천하면 만족도가 높다고. 이때 타이 매듭을 굵게 하거나 아치형으로 살짝 높게 매면 클래식한 느낌이 배가된다. 평소에는 구매하기 어려웠던 스리피스 수트를 예복 구매를 기회로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재킷과 베스트, 팬츠를 함께 매치할 때 더욱 드레스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이 매듭의 모양이 잘 유지되도록 고정해주며, 버튼을 오픈하거나 수트를 벗을 때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짙은 그레이 컬러 수트와 화이트 셔츠, 하운즈투스 체크 타이는 각각 3백34만원, 49만원, 14만원 모두 **제나**. 화이트 부토니에 가격 미정 **갤럭시**.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블루 컬러 수트와 잔잔한 꽃무늬 셔츠는 각각 1백69만원, 43만원 모두 **폴 스미스**. 화이트 컬러 수제 보타이 7만5천 **로드앤데일러**. 핀 스트라이프 베스트와 블루 셔츠, 화려한 프린트 타이는 각각 6백98만원(재킷과 팬츠 포함), 69만8천원, 27만8천원 모두 **탈프로렌**. 블랙 수트(팬츠 포함)와 화이트 셔츠는 각각 79만원, 17만5천원 모두 **갤럭시**. 네이비 컬러 보타이와 화이트 행거치프는 각각 6만5천원 모두 **란스미어**. 매끈한 라인과 자연스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슈즈는 2백89만원 **벨루터**. 상차 위의 블랙 슈즈는 1백만원 **제나**.

갤럭시 02-2076-7332 란스미어 02-541-4177 탈프로렌 02-6004-0133 로드앤데일러 02-515-1837 벨루터 02-3446-1895 폴 스미스 02-3447-0278 제나 02-2016-5325

여의도를 여행하라

2012.8.30
IFC몰 OPEN



CGV*

HOLLISTER
CALIFORNIA
1922

YP BOOKS 영풍문고

H&M

ZARA

EIGHT SECONDS

Massimo Dutti

GAP

MANGO

BEAN POLE

Bershka

PULL&BEAR

BANANA REPUBLIC

GIORDANO
concepts

Nike

adidas

Gradivarius

Frisbee

Food Empire
PRESTIGE
RESTAURANT FOOD COURT & BOUTIQUE

ON THE BORDER
MEXICAN GRILL
& CANTINA

IFC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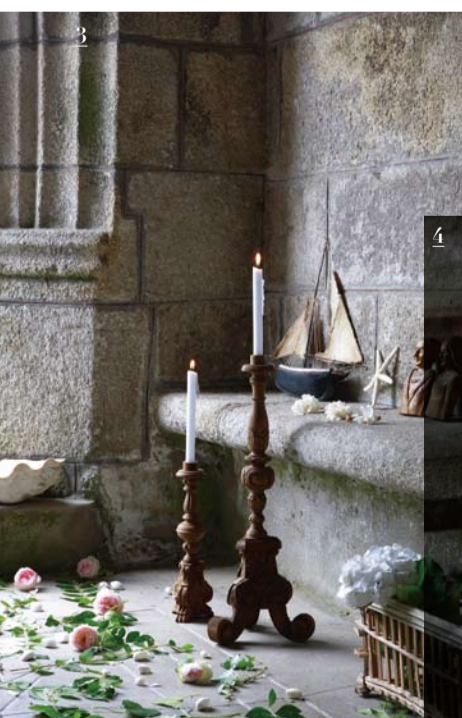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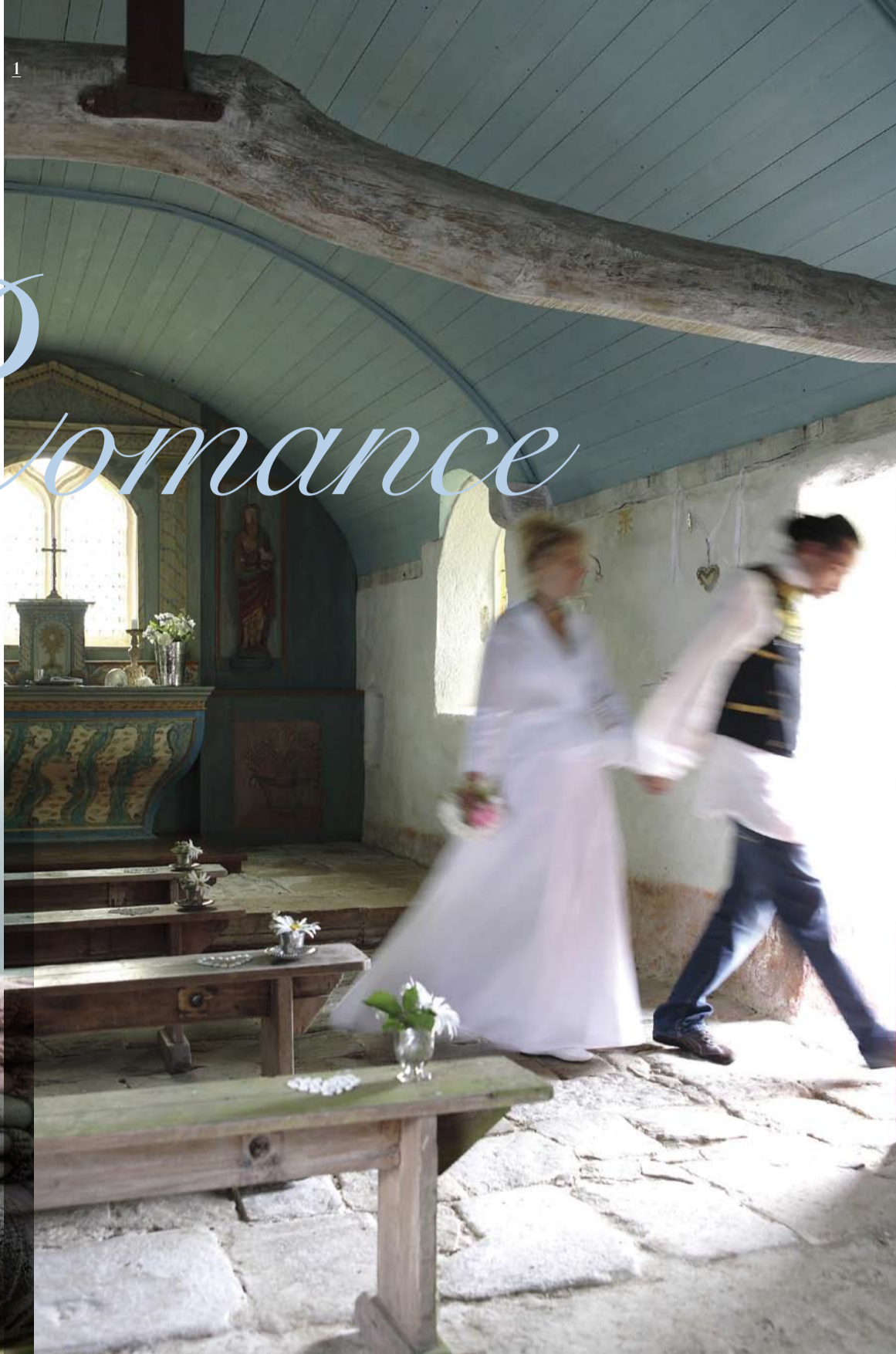
www.ifcmallseoul.com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연결

콘래드 호텔 11월 오픈 예정

A SEASIDE

동화의 한 장면 같은 낭만적인 해변의 웨딩.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봤을 듯한 로망이다. 푸른 바다와 흰 구름 그리고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해변가에서 로맨틱한 축제가 펼쳐진다. 여기, 프랑스 시골 해변가에서 올린 작은 결혼식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하고, 여름 태양처럼 강렬한 웨딩을 위한 인스피레이션을 선사한다.

Romance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비닷빛깔 결혼식

브르타뉴 지방 캡 사죤(Cap Sizun)의 이름답고 전통적인 색채로 가득한 사랑스러운 예배당에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특별한 웨딩 세리머니가 펼쳐진다. 파란색과 흰색 그리고 이 지방의 에스프리가 어우러져, 광대한 바다의 깊고 넓은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결혼식. 해변가의 작은 예배당은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허락된, 소박하지만 더없이 신성한 장소이다. 투박하지만 더없이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돌벽다,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긴 세월을 간직한 나무로 장식한 천장. 의자가 없는, 거친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길고 나지막한 테이블 위에는 야생화를 꽂은 유리잔이 화려한 꽃 장식을 대신하고 있다. 결혼식장을 위한 데코레이션은 나무로 만든 아와용 촛대와 누군가가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상, 모형 돛대배상이 전부. 바다에 흩뿌려진 꽃들은 그 어떤 부케보다도 아름답다. 결혼식을 위한 신랑, 신부의 예복 역시 모두 핸드메이드로 완성했다. 허얀 면 소재의 심플하고 루스한 드레스는 비닷비빔을 그대로 품어 안아준다. 금사로 장식한 베스트와 오버사이즈의 화이트 셔츠를 매치한 신랑의 예복은 인어공주를 맞으러 온 동화 속 왕자님을 연상케 한다. 피로연이 열리는 곳 역시 해변가의 모래 위. 화이트 & 블루의 커다란 마 소재 원단이 테이블을 대신하고, 엔틱한 테이블웨어를 세팅해 로맨틱함을 더했다. 블루와 터키 블루 컬러가 믹스 매치된 다양한 사이즈의 쿠션은 훌륭한 장식일 뿐만 아니라 파티를 즐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품이다. 오래된 와인 병, 주석 소재의 아이스 버킷, 투박한 유리잔, 레몬트리 소재의 볼과 그릇들.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추억을 되살리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하객 한 명 한 명의 이니셜을 새긴 리넨 소재의 냅킨으로 자리를 표시하고, 하트 모양의 구슬 장식을 냅킨 홀더용으로 예쁘게 놓아두었다. 바다와 물고기를 모티프로 한 그 외의 소품들도 적절한 곳에 놓아 해변의 웨딩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마무리했다. 이제 그저 해변가 모래 위에 편하게 앉아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새롭게 탄생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면 될 일이다. 피로연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노을이 갈리는 저녁 무렵이 되면 신랑과 신부는 옷이 그들만을 위한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하객들과 함께 해변가를 맨발로 산책한다. 비닷비빔과 해변의 노을을 느끼며 걷는 마지막 결혼 의식. 해변의 로맨틱한 결혼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 예식을 마치고 피로연장으로 향하는 신부와 신랑. 2 하객들에게 줄 선물로 선택한 코튼 타월과 밀크 비누 세트. 3 예배당 안의 데코레이션 소품. 나무로 만든 핸드 크래프트 제품들이 목가적인 느낌을 더한다. 4 예배당의 낮은 나무 탁자는 야생화와 하트 모양 장식으로 사랑스럽게 장식했다. 5 동화와 같은 해변의 피로연. 6 은색 도금의 버섯 모양 소품. 7 해변의 자락을 밝혀줄 물고기 모양 양초. 바구니의 손잡이도 블루로 칠해 해변과 잘 어울리도록 연출했다. 8 발사믹 오일과 비니가를 담은 유리 용기 역시 물고기 모양이다. 9 쿠션과 냅킨 등을 장식하는 조개 소재의 귀여운 하트 무늬 단추. 10 예식이 열리는 예배당 입구를 장식한, 양철로 만든 천사. 11 맨발로 비닷길을 산책하며 해변 웨딩을 마무리했다. 12 심플하지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신부의 웨딩드레스. 13 신부의 웨딩 주얼리는 하트 초커와 불가사리 반지다. 14 피로연을 위한 하객들의 자리를 장식한 냅킨과 하트 모양 장식. 15 모든 핸드메이드 제품에는 친환경 블루 페인트를 사용했다. 독특한 프린트의 포르세티나 벚지는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멋스러운 인테리어용품이다.

스타일리스트 Veronique Mery 촬영: 아카데미 제공 Patricia Hood 사진 Christine Fleurent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러브드 링 9천만원대 **부세론**, 부드러운 동심원이 파장을 일으키는 듯한 서프라이즈 컬렉션 링, 0.37캐럿 4백80만원대 **다이아나**, 심플한 디자인의 밴드에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레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타사키**, 메인 솔리테어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볼드하게 세팅한 발레린 파베 링, 0.62캐럿 기준 1천4백만원대 **까르띠에**, 2개로 나누어진 밴드 사이에 한송이 꽃처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펠리아 솔리테어 링,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7백12만원 **샤넬 하인주얼리**,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2줄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가 감싸 더욱 볼륨감 넘치는 솔리스트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부터 **타파니**, 옐로 골드 밴드에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웨딩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빈클리프 아벨**,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의 웨딩 링, 1.2캐럿 기준 4천만원대 **불가리**.

Love FOREVER

'결혼'이라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영원을 약속한 두 사람에게,
언제나 처음을 기억하게 해줄 웨딩 주얼리&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THE
CORRESPONDENCE OF CHARLES
AND
SIR EDWARD NICHOLAS

Few more valuable or more interesting illustrations of any time made public than the Private Correspondence of the secretary-of-state, Sir Edward Nicholas, whose he inherited, having been connected since their publication they have been
or critic of the period on which they have been written.
In no respect illustrating or forming a part of these papers are strictly historical documents as they were found; with patches: as 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printed in the King's appraisals, printed in the King's appraisals.

...and in the Isle of Wight, he was recommended to the king's observation by the recommendation, some brief account as born in April, 1592-3, educated at Cambridge, and on the 11th of January, 1634, was named one of the six clerks in the office of the Lord Zouch, Lord Warden of the Exchequer, and continued Nicholas in his offic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젤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돋보이는 불가리 불가리 워치, 화이트색 알리게이터 밴드를 매치한 여성용 워치는 6백만원대, 블랙 알리게이터 밴드를 매치한 남성용 워치는 1천20만원대 모두 불가리, 워딩 워치로 각광받고 있는 탱크 슐로 컬렉션, 스틸 밴드 디자인의 여성용 워치는 3백10만원대, 블랙 가죽 밴드를 매치한 남성용 워치는 3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밴드를 무광 처리한 새로운 버전의 J12 남성용 워치 8백31만원, 작고 심플한 화이트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용 프리미에르 세리미 워치 1천26만원, 모두 샤넬 화인주얼리,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미드 워치 오토매틱 워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용 워치 2천6백만원대, 로즈 골드 소재 남성용 워치 3천1백만원대, 모두 해리 윈스턴.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높은 계단 형태로 세팅한 루시다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웨딩 링의 대명사인 클래식한 티파니 세팅 링. 6개의 프롱(발굴림)이 다이아몬드를 받치고 있다. 1캐럿 기준 1천만원대. (레이스 가운데 놓인) 화려한 광채의 브릴리언트 쿠션 컷을 세팅한 노보 링. 밴드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캐럿 기준 1천만원대. 다이아몬드가 총총히 박힌 심플한 디자인의 채널 세팅 밴드 링 5백만원대. 정사각형의 프린세스 컷 메인 스톤이 클래식한 그레이스 링. 밴드에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1캐럿 기준 1천만원대. 정사각형 다이아몬드 세팅이 우아한 그레이스 컬렉션 네크리스 8백만원대. 연속적인 'X' 라인을 16개의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 삭스틴 스톤 링 1천만원대. 다이아몬드를 리듬감 있게 배치한 고전적인 디자인의 스윙 밴드 링 7백만원대. (왼쪽 아래) 드물형 디자인의 그레이스 컬렉션 이어링 1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8mm 핑크빛 비드 진주 네크리스 3백만원대, 8mm 진주 이어링 60만원대, 18K 사쿠라 골드에 원 포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벨로 웨딩 링 1백20만원대, 피아노 2번처럼 디자인한 18K 사쿠라 골드 밴드 링 1백20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한 피아체레 가드 링 2백50만원대, 피아노 2번 모양의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솔리테어 형식으로 세팅한 피아노 웨딩 링 5백만원대, 아름다운 곡선 밴드에 0.3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로 링 3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비에 진주를 유려하게 세팅한 밸런스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타사기**, (중앙 아래 블루 북 위 왼쪽부터) 심플한 디자인의 클래식한 블레싱 듀 링, 0.5캐럿 기준 5백50만원대, 유려한 곡선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르노 링, 0.3캐럿 기준 2백30만원대, 0.5캐럿의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멜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보노르 칼렉션, 0.5캐럿 기준 6백40만원대, 모두 **골드듀**.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하트 모티브 쿠르 디 네크리스 4백90만원대 **다미아니**, 핑크 골드, 화이트 세라믹, 다이아몬드, 옐로 골드를 순서대로 배치한 쿼터 화이트 초콜릿 링 1천만원대, 블랙 세라믹을 매치한 쿼터 블랙 에디션 링 4백만원대, 4.43캐럿에 달하는 물방울 모양의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 러브드 링 가격 미정, 0.25캐럿의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8백만원대, 옐로 골드 라인을 넣은 이터널 그레이스 웨딩 밴드 1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반지 옆면에 로즈 골드로 포인트를 준다. 사이드 컷플 링, 2백20만원대 **다미아니**, 투명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바 페어 웨이프 링 1천만원대 **부쉐론**, 핑크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리스탈 컬렉션 링 3백40만원대 **다미아니**, 0.5캐럿 마크스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그레이스 솔리더 링 2천만원대 **부쉐론**, 꽃 모티브를 연속적으로 배치한 크리스탈 컬렉션 가드 링 8백만원대 **다미아니**, 작약 모티브의 이바 피브와 링 1천만원대 **부쉐론**, 양관 모티브의 꼬론치네 링 1천만원대, 화이트 세라믹에 브랜드 로고를 새긴 다이아몬드 링 3백50만원대, 모두 **다미아니**.



Justice of the
as refused.
August for
mbassadors
the King,
agent wh
anted
very
Lo.
red

754
both
ye
ET
F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 모티브 코메트
 니크리스 4백28만원, 블랙 세라믹 울트라 미니 밴드
 2백28만원, 블랙 세라믹에 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트라 미니 솔리테어 링 5백92만원, 화이트
 세라믹 울트라 미니 밴드 2백28만원, 화이트 세라믹에
 원 포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트라 미니 솔리테어 링
 5백92만원, 2개의 밴드 사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멜리아 솔리테어 링 1천7백12만원, 507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멜리아 워딩
 밴드 4백37만원, 화려한 디자인의 핏트 까멜리아 링
 1천7백30만원,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울트라 펜던트
 각 3백91만원, 미니 까멜리아 화이트 이어링
 4백10만원, 모두 사설 확인주요리.



Printed by J. & W. Parker Oxford.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트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아몬드 레제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5천6백만원대, 플래티넘에 심플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무르 워딩 밴드 4백80만원대, 브랜트 로고를 새긴 카를 워딩 밴드 3백30만원대,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워딩 밴드 4백20만원대, 완벽한 정원형의 디자인 덕분에 다이아몬드가 더욱 볼드해 보인다. 1.07캐럿 기준 2천7백만원대, 다이아몬드와 밴드의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세팅 기법을 활용한 솔리더어 1895 링, 1.1캐럿 기준 3천1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워딩 밴드 1천3백만원대, 플래티넘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밴드에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솔리더어 1985 파베 링, 0.7캐럿 기준 1천7백만원대, 작은 다이아몬드를 원형으로 세팅한 다이아몬드 레제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8백10만원대, 요람에 놓인 듯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독특한 발레린 파베 링 1천4백만원대, 심플한 드롭형 링 2백30만원대, 섬세하게 움직이는 이어링 5백70만원대, 볼륨감 넘치는 세팅 기법의 플로랑팡 링, 1.53캐럿 기준 5천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립페 링, 1.5캐럿 7준 4천7백만원대, 도톰한 플라티넘 밴드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1캐럿 7준 3천만원대, 플라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워딩 밴드 링 5백만원대, 비, 제로원 컬렉션에 다이아몬드를 솔리테어 세팅한 비, 제로원 워딩 링, 0.5캐럿 7준 9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데카 링, 0.7캐럿 7준 1천6백만원대, 오벌 모티브의 엘리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원만한 V자 형태를 그리는 코로나 컬렉션 워딩 밴드 각 4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하고 밴드에는 다이아몬드를 2줄 파베 세팅했다, 0.7캐럿 7준 1천9백만원대, 밴드 옆면에 불가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비, 제로원 링 7백만원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링, 1.5캐럿 7준 5천만원대, 모두 불가리.



(왼쪽 중간부터 시계 방향으로) 허안 설원에 피어난 눈꽃을
형상화한 볼륨감 넘치는 스노우 플레이크 네크리스
5천만원대, 핑크 골드에 알함브라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를리 펜던트 7백만원대, 크고 작은 꽃송이가
어우러진 프로볼 컬렉션 네크리스 7천만원대, 우선형
모티프로 디자인한 니드 파라디 링 1천2백만원대, 꽃송이에
다이아몬드를 피에 세팅한 프리볼 컬렉션 링 1천만원대,
핑크 골드를 입체감 있게 디자인한 베를리 링 1백만원대,
플래티넘에 보헤미안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입체적인 스노우
플레이크 링 8천만원대, (오른쪽 아래) 세 송이 꽃을 세팅한
스노우 플레이크 이어링 6천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마자 모티브의 아틀라스 돔 워치. 남성용, 여성용 각 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정사각형 케이스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PA49 워치.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용 워치 3천만원대, 옐로 골드 케이스 남성용 워치 8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레이디메틱 워치 9백만원대, 클래식한 원형 디자인의 스틸 워치인 드빌 아워버전 8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블랙 얼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볼드한 디자인의 파남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워치 1천만원대, 로마자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룬드 페미닌 워치 8백만원대 모두 **부세론**. 에디터 **베미진**

까르띠에 1566-7277 **부세론** 02-543-6523 **다이아나** 02-546-3632 **타사키** 02-3461-5553 **티파니** 02-547-9488 **골드듀** 02-3415-5713
샤넬 **화인주얼리** 02-3442-0962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해리 윈스턴** 02-540-1356 **볼가리** 02-2056-0172 **오메가** 02-511-5797

May H...
 by ye ha...
 Address...
 leaves n...
 to the...
 order to...
 backe...
 engag...
 Ye...
 E...
 ye...
 co...

THE NICHOLAS CORRESPONDENCE
 and advanced him to be secretary to the Admiralty, on the duke's death, which was in 1636, when he was...
 unbernd, being appointed Lord High Admiral, he was...
 king, from which resulted his selection for the post...
 his activity and November, 1641, the day...
 offered to the king after the death...
 this exception, however, in the day...
 by the party...
 752



Snow White

허리를 꼭 조이는 코르셋, 화사한 빛이 스며들게 하는 섬세한 레이스와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주얼리까지. 신부가 꿈꾸는 모든 순간을 담은, 시처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크리스탈 비딩 튜브 롱 드레스 가격
미정 제사카 블러썸, 볼드한 벵글
75만원, 진주 링 35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블랙 턱시도 가격
미정 로드앤데일러.



화려한 플러워 자수 드레스와
블레로 모두 가격 미정 **오스카
드라켄타 by 소유**. 오벌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엘리시아 컬렉션
네크리스 6천만원대 **불가리**.

풍성한 사스커트 튜브
톱 드레스 가격 미정
화이트 바이 베라왕 by
틸리아웨딩. 6.9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작은 장미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로즈버드 네크라스 가격
미정 해리 윈스턴. 깃털
헤어 피스 가격 미정 사라
가브리엘 by 소유.





풍성한 밑단의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 7백만원대 **베라 앙 코리아**. 진주 펜던트 장식 아그라프 컬렉션 네크리스 8천3백만원대, 이어링 4천4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화이트 깃털 헤드 피스 가격 미정 **코사지 by 이승희**

섬세한 레이스 드레스 5백만원대
프로노비아스, 티아라 가격 미정
제시카 블라썸, 오른팔에 착용한
그레이스 컬렉션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빅토리아 컬렉션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아틀라스 뱅글
1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볼드한
쉬닝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블랙
텍시도 가격 미정 로드앤테일러.





빈티지 무드의 레이스 드레스
가격 미정 크리스토프 by
암살라, 백합 모티브 카라
릴리 네크리스와 링 가격
미정, 브레이슬릿으로 연출한
진주 프티 펠 네크리스
1백30만원대 모두 타사기,
진주 비딩 헤어밴드 16만원
코사지 by 이승희.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박이화
모델 이현이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어시스턴트 김혜인
에디터 배미진

화려한 볼망 레이스 소매 디테일 드레스 1천5백만원대 **브라이덜 공**, 화이트 베일 가격 미정
암살라, 볼드한 쉬닝 가격 미정 **다미아니**, 검지에 낀, 다이아몬드를 빼곡히 세팅한 잔 술럼버제 16스톤 링 1천만원대 **티파니**, 왼손 약지의 마름모 형태 줄리엣 링 2천만원대 **다미아니**, 검지에 착용한 셀러브레이션 링 2천만원대 **티파니**.

암살라 02-3452-1192
소유 02-541-7077
제사카블러썸 02-517-9566
프로노비아스 02-511-9649
릴리아웨딩 02-544-0520
베라왕 코리아 02-545-1171
이승희 02-558-1459
까르띠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티파니 02-547-9488
스오로브스키 02-3395-9096
해리 윈스턴 02-540-1356
불가리 02-2056-0172
다미아니 02-546-3632
초이 꾸뛰르 02-544-8915
브라이덜 공 02-542-2508
로드엔테일러 02-515-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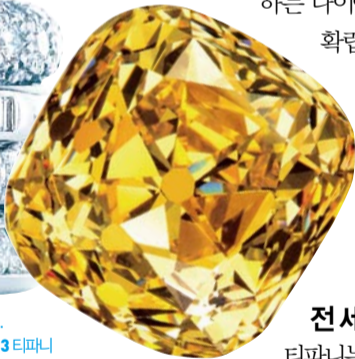
1

2



3

4



1 뉴욕 5번가의 티파니 플래그십 스토어. 2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 3 티파니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4 287.42캐럿의 티파니 다이아몬드. 5 티파니 웨딩 밴드 링. 6 (오른쪽부터) 세계 최초 다이아몬드와 밴드를 분리시켜 광채를 극대화한 웨딩 링의 대명사 티파니 세팅, 티파니가 개발한 독창적 커팅과 감각적 곡선의 루사다, 여성적이고 로맨틱한 쿠션 모양의 다이아몬드에 비드 세팅한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우아함을 더한 레가시, 전설의 티파니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릴리언트 쿠션 컷의 노보, 플래티넘 베젤 세팅의 모던한 디자인을 선사하는 에도알.



5

6

티파니 탄생 1백75주년을 기념하는 2012년 가을, 결혼을 더욱 눈부시게 빛내줄 꿈의 웨딩 링과 티파니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는 '티파니 브릴리언트 페어 A Lifetime of Brilliance'가 전국 백화점 티파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8.15~9.10 장소 8.15~20 롯데백화점 티파니 전점 8.22~27 신세계백화점 본점·영등포점·인천점, 8.29~9.3 현대백화점 전점 9.5~10 갤러리아 EAST, 분당 AK 플라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부산 센텀시티점 문의 02-547-9488



수많은 연인들이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고르기 위해 뉴욕 5번가의 티파니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해왔다. 이러한 전통은 다이아몬드와 진실한 사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티파니가 쌓아온 유산 중 하나이다. 1백75년 전인 1837년, 팬시 문구점으로 시작한 티파니는 오늘날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이자 웨딩 링의 대명사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왕이 되다

1878년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남아프리카 김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채굴한 1스퀘어인치가량의 287.42캐럿 옐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후 128.54캐럿의 82면 쿠션 커팅 다이아몬드로 연마하고, 이를 '티파니 다이아몬드'라 명명하면서 다이아몬드의 권위자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대가로서의 명성뿐 아니라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전문 브랜드로서 티파니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1961년 티파니의 전설적 디자이너 잔 슐럼버제에 의해 리본 로제트 목걸이로 세팅되었고,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포스터 촬영에서 오드리 헵번이 착용하며 동시대 최고의 주얼리로 주목받았다.

전 세계 여성들을 사로잡은 티파니 웨딩 링

티파니는 엄격한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 미만의 최상급 다이아몬드 중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다이아몬드만을 사용한다. 티파니는 주얼리 브랜드 중 유일하게 최첨단 시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석학자들로 구성된 자체 감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광채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석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며 정교하게 커팅된다. 오랜 시간과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티파니 다이아몬드에는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가 주어진다. 이 다이아몬드 증서는 타 감정서와는 달리 고객이 구입한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품질를 평생 보증한다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티파니의 권위와 고객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디자인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티파니 웨딩 링으로 완성된다. 1477년 오스트리아의 아르두크 막시밀리안이 최초로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으나, 다이아몬드 광채와 아름다움을 살리지 못한 초보적인 수준의 세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886년, 티파니는 6개 플래티넘 프롱의 세팅으로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분리시켜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한 혁신적 디자인의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을 세상에 내놓으며 웨딩 링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티파니 세팅은 최고의 광채와 디자인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주얼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혁신 중 하나로 손꼽히며 웨딩 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1886년 티파니 세팅으로 시작된 전설적인 티파니의 웨딩 링 컬렉션은 1백50년이 넘는 디자인부터 몇 년 전 출시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며 결혼을 앞둔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으며,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심플한 세팅으로 '평생토록 빛나는 아름다움(A Lifetime of Brilliance)'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티파니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함께 커플을 위한 웨딩 밴드와 셀러브레이션 링을 선보이고 있다. 플래티넘 또는 18K 골드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웨딩 밴드와 셀러브레이션 링은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함께 매칭할 때 웨딩 링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가터 링으로, 별도로 착용했을 때는 서로의 사랑을 이어주는 커플 링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셀러브레이션 링으로 그 빛을 발한다.

고귀한 사랑의 상징, 티파니 블루 박스

티파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블루 컬러. 올새의 일종인 로빈 새의 아름다운 알에서 유래한 색상인 티파니 블루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선물한 비둘기 장식에 쓰이며 세상에 알려졌고, 1845년 최초로 발행한 카탈로그 표지 컬러를 시작으로 이후 티파니는 제품 박스, 광고 등에 티파니 블루의 사용을 확대해나키며 다이아몬드 웨딩 주얼리 브랜드로서 티파니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나갔다. 이제 티파니 블루 박스와 하얀 리본은 최고의 제품, 최고의 장인 정신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그 존재만으로도 고귀한 사랑을 꿈꾸게 하는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DANDY CHIC

캐주얼하면서도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결혼식 하객 스타일. 브라운 컬러의 타탄 체크 재킷 안에 밝은 컬러의 체크 셔츠를 매치하고, 안에 도트 무늬의 실크 스카프를 가볍게 둘러 매면 격식을 차리면서도 여유를 느끼게 하는 스타일이 완성된다.

체크 재킷 1백75만원,
셔츠 31만5천원,
에스코 타이 7만9천원.



ELEGANCE NOBLE

하객 패션은 물론 세미 캐주얼 룩으로 연출해도 세련된 스타일. 도통한 캐시미어 재킷에 부드러운 울 니트와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같은 톤의 캐시미어 스카프를 걸치면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캐시미어 재킷 1백95만원,
니트 23만9천원,
체크 셔츠 23만9천원,
캐시미어 스카프 25만원.



WEDDING

Attire

정통 이탈리아인 클래식 남성복 브랜드 빨 질레리가 다가오는 F/W 시즌을 위한 세련된 수트를 선보인다. 예비 신랑을 위한 예복 수트부터 결혼식 참석을 위한 하객 패션까지 책임져줄 네 가지 스타일링 제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MODERN CLASSIC

더블 브레스티드 체크 수트로 완성한 모던 클래식 예복. 체크 패턴의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중심으로 블루 셔츠와 फै이즐리 보타이를 스타일링한다. 거기에 깔끔한 화이트 컬러 행커치프를 매치하면 단정하게 마무리된다.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 1백75만원(팬츠 포함),
셔츠 31만5천원,
보타이 5만5천원.



FORMAL SUIT

타이와 행커치프에 포인트를 더한 예복 수트 스타일링. 짙은 네이비 컬러의 핀 스트라이프 수트는 직장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도가 높다.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에 짙은 자줏빛 타이와 행커치프를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되어준다. 에디터 **이예진**

핀 스트라이프 수트 1백95만원(팬츠 포함),
화이트 셔츠 14만9천원,
타이 10만5천원.
문의 02-2076-7625



EXOTIC Glam

신부의 혼수 중 필수 품목이 되어버린 명품 가방. 남들과는 다른 럭셔리 백을 원한다면 차별화된 디자인과 강렬한 컬러, 혁신적인 피니싱 기법이 돋보이는 이그조틱 레더 브랜드 잘리아니(ZAGLIANI)를 선택하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화려하고 강렬한 컬러의 이그조틱 레더, 잘리아니

혼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혼수의 종류를 줄이는 대신 활용도가 높거나 소장 가치가 있는, 자신이 선호하는 품목에는 과감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다이아몬드, 진주, 유색 보석 등 풀 세트로 구입하는 장롱 예물 대신 시계나 가방에 투자하고, 예복 역시 결혼식을 위한 턱시도보다는 고급 수트를 구입해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는 식이다. 그중 명품 가방은 여성들 사이에서 혼수 필수품으로 꼽힐 정도. 특히 취향이 다양해지고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원하는 신부들이 늘면서 이그조틱 가죽 가방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졌다. 다른 소재보다 고가인 테다 어떤 등급의 가죽으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나 퀄리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이그조틱 레더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그중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잘리아니(ZAGLIANI)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최상급 뱀가죽과 악어가죽만을 다루는 프리미엄 이그조틱 레더 가방 브랜드다. 1947년 디자이너 브루나 잘리아니(Bruna Zagliani)가 악어가죽을 다루는 기술자인 남편과 함께 론칭했으며, 밀라노의 숙련된 가죽 장인들과 함께 잘리아니만의 첫 번째 핸드메이드 소프트 백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소가죽이나 양가죽에 비해 다루기 어려운 이그조틱 레더로 부드러운 물결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었다. 2009년엔 지미추, 발리, 데렉 램 등을 소유한 명품 유통 그룹 라벨룩스(Labelux)로 인수되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6개국의 1백 개 숍에서 판매할 만큼 글로벌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오로지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만을 이어가며 비단뱀, 물뱀, 악어 등 스킨의 조합에 따라 15가지가 넘는 잘리아니만의 피니싱 방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 특히 화려하고 강렬한 컬러 역시

주목할 만한데, 생동감 넘치는 그린·오렌지·핑크 컬러를 비롯해 물감을 흠뻑러놓은 듯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한 컬러, 반짝이는 실버·브론즈 컬러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다양한 소재의 조합이 돋보이는 2012 F/W 컬렉션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새로운 트렌드에서 영감을 얻은 잘리아니의 2012 F/W 컬렉션은 클래식 바탕으로 실험적인 컬러와 소재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꾸준히 사랑받는 블랙과 그레이를 메인 컬러로 보라, 레드, 블루, 그린의 강렬한 터치로 더해 살아 있는 듯한 가죽의 텍스처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아름다움을 배가했다. 뱀과 악어가죽은 물론 겨울 시즌을 겨냥한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는데, 역동적인 얼룩말 프린트에는 밍크를 입히고, 블루 컬러 카룸에는 여우털로 장식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또 천연 뿔을 버클에 사용해 희소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잘리아니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백 퍼피(Puffy)는 부드럽게 가공한 비단뱀가죽에 주름을 잡아 밑바닥을 풍성하게 만든 볼륨감이 특징. 핸드폰과 작은 지갑 정도만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부터 미디엄, 라지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로 선보이며, 레오파드 프린트를 입혀 관능적인 느낌을 더하기도 했다. '아이다(Aidha)'는 매끈한 형태와 부드러운 윤기, 선명한 색감이 돋보이며,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사각 형태의 '쿠마(Cuma)' 라인은 솔터 스트랩을 달아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가방 전면에 볼드한 스티치를 장식해 록시크 무드가 느껴지는 '린다(Linda)', 체인 스트랩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지울리아(Giulia)'도 놓치지 말 것. 국내에서는 아시아 첫 단독 매장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해 엘본더스타일(ELBON the style) 가로수길 본점과 갤러리아 센터시티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752 에디터 **이예진**



1 잘리아니를 대표하는 퍼피백. 2 모든 가방은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3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위치한 매장.

Linda bag

(왼쪽부터) 물뱀가죽의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한 퍼플 컬러 미니 핸드백 3백18만원, 같은 디자인에 소재를 비단뱀가죽으로 바꿔 터프한 매력에 느껴지는 블루 컬러 미니 핸드백 3백9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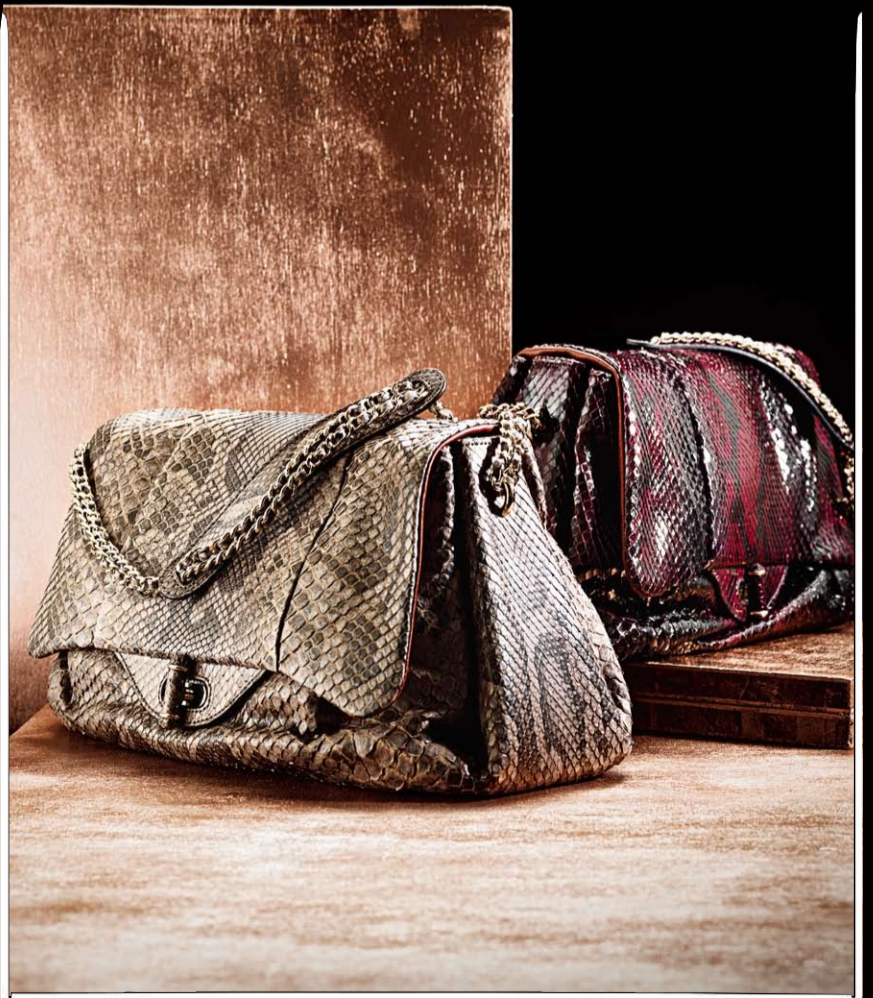
Aidha bag

매끈한 곡선 형태가 돋보이는 투톤 컬러이다. 백, 비비드한 오렌지·핑크 컬러의 악어가죽으로도 선보인다. 7백60만원.



Giulia bag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한 지올리아 백, 체인 스트랩에 가죽을 덧대 견고함을 살렸으며, 가죽 본연의 컬러를 세련된 느낌으로 가공했다. 5백30만원.



Cuma bag

견고한 가죽의 질감이 살아 있는 토트백, 내부에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들어 있어 숄더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7백84만원.



BEST

Wedding

THINGS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곱하는 스페셜 웨딩 데이를
꿈꾸는가. 여기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베스트 아이템을 소개한다.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플라워 장식에서 트렌디한 웨딩 슈즈까지, 인생의
첫출발을 더욱 빛나게 해줄 웨딩 컬렉션의 모든 것.
Photographed by **Lim Tae Joon**



클리머티스, 미니 장미, 리시안셔스에
베로나카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한
프랜치 스타일의 부케.
에스플로라 & 마리스텔라.
(우) 테이블 장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메뉴판과 담례품. 신랑과 신부의
취향과 웨딩 장소에 맞춰 스페셜하게
제작해준다. **스클인더페이퍼.**

결혼식을 위해 신부들이 가장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웨딩 부케. 부케는 주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맞게 연출하는데, 요즘은 프렌치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러운 꽃다발 형태의 프렌치 부케가 인기를 끈다. 주로 파티 형식의 하우스 웨딩이나 채플 결혼식에 추천할 만한 아이템으로, 컬러는 튀는 것보다 은은한 파스텔컬러가 무난하다. 신랑을 위한 부토니아는 여러 소재로 연출하기보다 한 종류로 깔끔하게 완성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또 신랑 신부 입장 시 화동들이 드는 플라워 볼과 웨딩 링 장식은 신부 부케 컬러와 비슷한 톤이 통일감 있어 보인다. 웨딩드레스와 웨딩 부케를 체크했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웨딩 슈즈. 보통은 웨딩드레스 슁에서 대여해주지만, 나만의 웨딩 데어로 기억되고 싶다면 웨딩 슈즈만큼은 구입하는 것도 좋을 듯. 보통 10cm를 기준으로 본인의 키와 드레스 길이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웨딩 슈즈 선택 시 반드시 체크할 것은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착용감, 긴장되는 순간 계속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면 결혼식을 즐기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 컬러는 주로 화이트나 실버를 선택하는데 결혼식 장소나 콘셉트에 따라 컬러 슈즈를 신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도록.



1



2

ROMANTIC MATCH



3



4

1 왁스 플라워, 베로니카, 천일홍으로 연출한 부토니아. 심플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이 하우스 웨딩에 잘 어울린다. **에스플로라 & 마리스텔라**. **2** 플라워 걸을 위한 미니드레스와 플라워 볼. 드레스는 **릴리아웨딩**. 플라워 볼은 **에스플로라 & 마리스텔라**. **3** 화동들이 입장할 때 드는 웨딩 링. 꽃 장식과 링 쿠션은 **에스플로라**. 웨딩 링은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준 밴드 링. 각 2백만원대 **티파니**. **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련 장식 화이트 새틴 펌프스 2백만원대, 클래식한 크림 컬러 새틴 슈즈 1백만원대, 크리스탈 장식을 한 실버 컬러 샌들 1백만원대 모두 **마블로 블러너**. 크리스탈과 유리로 장식한 주얼리 새틴 슈즈 가격 미정 **프라다**.

1



결혼식장에 처음 들어가면 바로 눈길을 끄는 곳이 방명록과 포토 테이블 코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간혹 꽃 장식을 너무 과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인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로맨틱한 핑크 톤의 컬러로 조금 크게 센터 피스를 하나 만든 후 장식할 꽃이나 양초를 이용해 높낮이에 변화를 주는 것. 이때 화기는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한 유리 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다. 화기에 물을 담아 꽃이나 플로팅 초를 띄워주면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임팩트가 있어 훨씬 세련되어 보인다. 센터 피스 주변에는 미니 사이즈의 양초와 장미 꽃잎으로 세팅을 하면 은은하면서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또 식사가 끝난 후 고객들을 위한 답례품 코너도 조금만 신경 쓰면 신랑과 신부의 정성과 센스를 느낄 수 있다. 답례품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을 때도 있는데, 소규모의 파티 형식이라면 입구에 있는 포토 테이블 옆에 케이크 장식과 함께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 답례품은 주로 초콜릿이나 쿠키, 마카롱 등 디저트 아이템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향초나 방향제 등 인테리어 소품들도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2

FLORAL NOTES

4



3

1 센터 피스와 양초로 방명록 코너를 센스 있게 꾸렸다. 센터 피스 연출은 **에스플로라 & 마리셀라**. 방명록 제작은 **스쿨인더페이퍼**. 2 신랑, 신부 퇴장 시 꽃잎을 뿌려 축하하기 위해 연출한 콘페티 **에스플로라 & 마리셀라**. 3 신부 들러리를 위한 부케는 신부용 부케보다 단아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이 좋다. 카라 부케는 **에스플로라 & 마리셀라**. 4 웨딩 케이크 역시 웨딩 데이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화려한 스타일의 슈거 케이크는 **오즈름**. 답례품 제작은 **여랑카드**.

플로리스트 **김효주** 객원 에디터 **사혜정**

에스플로라 & 마리셀라 02-545-2970 **여랑카드** 02-546-7996
스쿨인더페이퍼 02-3144-3184 **마블로 블라너** 02-3443-2113 **프라다** 02-6905-3673
타파니 02-547-9488 **오즈름** 070-8843-2546 **릴라이웨딩** 02-544-0520



URBAN Classic

세련된 스타일과 빈티지 느낌의 정겨운 감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췄다면... 집 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가구를 찾는 많은 신혼부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면면이 아닐 수 없다. '아메리칸 모던 클래식'을 표방하는 미첼 골드+밥 윌리엄스(Mitchell Gold+Bob Williams, MGBW)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구 브랜드이다. 뉴욕 소호의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백악관까지 입성할 정도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MGBW는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도회적인 스타일을 지닌 동시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감성, 사용하기에 편리한 실용의 미학 등 삼박자를 갖췄다. 올 하반기, 예비 신혼부부들이 탐낼 만한 행사를 마련해놓고 있는 MGBW의 매력을 살펴보자.

"럭셔리는 반드시 편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럭셔리가 아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이 같은 명언은 MGBW의 디자인 철학과 닮았다. 다시 말하자면 '세련된 안락함'이다. MGBW는 실제로 도회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훈훈한 감성을 뽐내면서, 편리함까지 갖춘, 삼박자의 가구 미학을 꾸준히 추구해온 브랜드다. 198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미첼 골드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디자이너 가구업체로, 현재 미국 내 3백여 개 매장을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아메리칸 모던 클래식' 가구의 명성을 쌓고 있다. 국내에서는 럭셔리빙이 지난해 중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아시아 최초로 MGBW의 플래그십 매장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 용산의 현대아파트백화점 7층 수입 브랜드 코너에도 입점했다.

뉴욕 소호에 잘 어울릴 듯한 도시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정감 있는 빈티지풍, 그리고 따스한 색감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MGBW 스타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편리하면서도 감각 있는 리빙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도 진출할 만큼 입지를 다졌으며 <섹스 앤 더 시티>, <어글리 베티>, <프렌즈> 등 미국의 인기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해 더욱 유명세를 탔다. 국내에서는 럭셔리 주상 복합에 MGBW 가구가 선택돼 은근히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면, 마, 리넨, 모헤어 등 천연 섬유를 바탕으로 한 패브릭 소재를 입힌 제품이 돋보이며, 가죽 소재 제품도 고급스럽고도 편안한 느낌을 풍긴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색상도 가죽이든 천이든 소재에 상관없이 화이트, 그

레이, 블랙 등 무채색 톤이나 은은한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루며 세련되면서도 정겹고 사랑스러운 빈티지 감성을 보여준다.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 러그 등 MGBW의 다양한 소품을 봐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배어나온다. MGBW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실루엣의 느낌은 '클래식'이지만 단순히 돋보이는 소재와 색감은 '모던'하고 실제로 앉았을 때는 최상의 휴식을 선사하는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더욱더 매력적인 요소는 이처럼 단아하고 격조 있는 스타일과 안락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브랜드의 가격대가 다수의 유럽 브랜드들과 달리 지못 합리적인 편이라는 점이다. 럭셔리빙은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을 겨냥한 특별 기획 행사를 마련했다. 100% 천연 리넨 소재로 제작한 우아한 디자인의 '헬레인' 침대를 매트리스와 함께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과 더불어 쿠션 등 엄선한 사은품을 증정하는(10점 한정) 행사가 9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또 소파, 의자, 탁자, 조명 등 다른 가구 품목들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편안한 럭셔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양한 색상의 천연 가죽과 패브릭 소파 등 MGBW의 폭넓은 제품군 중에서 기호에 맞는 가구와 소품을 골라 신혼집을 근사하게 꾸밀 수 있는 기회인 듯하다. 럭셔리빙 관계자는 "모던한 틀에 자연스러운 스타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브랜드를 찾는다면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들이 MGBW에는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02-542-8242, www.luxeliving.kr 에디터 고성연



1 럭셔리빙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MGBW 가구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최상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방 한가운데 놓인 정감있는 헬레인 침대는 100% 리넨으로 제작한 제품이다. 색상과 소재는 변경 가능하다. 2 화장대, 책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스 시리즈. 3 단순함의 미학을 내세우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모리스 시리즈는 혼수 품목으로 가장 많이 찾는 아이템 중 하나다. 4 안방이나 세컨드 룸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은 럭셔리빙의 인기만점 가구, 지니 리운드 체어.



DREAM

올가을 리빙 트렌드는 극도의 심플함과
 눈부신 화려함이 공존한다.
 핸드 크래프트 패브릭부터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모던한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2012 F/W의 새로운 인테리어를
 위한 특별한 컬렉션.

Photographed by **Lim Tae Joon**

Deco



A FINE SPACE

블랙이 주는 모던함과 가죽 소재의 양치기, 모듈형의 나무 소재 라운드 테이블을 조화시켜 모던함과 편안함,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모던 컨템퍼러리풍의 리빙 룸.

다양한 높이의 둥근 테이블 세트는 디자이너 자안프랑코 프라티니(Gianfranco Frattini)의 780 테이블로 1996년 작. 4백70만원 **밀라노디자인페어**에서. 테이블 위의 실버 카본 저그와 버킷은 '벨리니(Bellini)'. 모두 가격 미정 **아르마니 까사**. 테이블 위의 조명은 아이오나 보트랭(Iona Vautrain)이 디자인한 '비닉(Binic)'. 33만원 **포스카리니(Foscarini) by 에이후스**. 중앙의 베이지색 소파는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가 디자인한 임체어(2009). 95X88X65cm, 가격 미정 **밀라노디자인페어**. 의자에 걸친 독일산 블랭킷 가격 미정 **다브**. 오른쪽에 서 있는 프랑수아의 조명 가격 미정 **와츠**. 오른쪽의 블랙 컬러 의자는 '패션(Passion)'으로,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이 디자인했다. 57X 57X80X46cm, 2백20만원 **밀라노디자인페어**. 오른쪽 바닥에 놓인 독특한 디자인의 이탈리아산 조형물은 'Vortice 3' 가격 미정 **비에세**. 그 옆 나뭇잎 가지 형태의 메탈 오브제는 '에리카(Erika)'. 가격 미정 **아르마니 까사**. 바닥에 깔린 카펫은 '베르니 젠트브라운 코지 카펫'. 200X290cm, 가격 미정 **한일카펫**. 장면의 벽에 걸려 있는 것은 유선태 작가의 작품 **말과 글**(2010). acrylic on canvas, 227.3X181.8cm.



ETHNIC FABRICS

오렌지·브라운·그레이 컬러를 메인으로, 절제된 에스닉 패턴과 모던한 그래픽 패턴을 적절히 매치해 세련된 인테리어를 연출한다.

왼쪽 난간에 걸친 패브릭들은 감각적인 지오메트릭 디자인으로 오렌지 컬러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이 돋보이는 100% 순면 이불 커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같은 패턴의 베개다. 브릭 이불 커버 15만원, 베개 커버 3만원 모두 **소프라움**, 세련된 도시 감성을 담은 그레이 컬러의 모던한 쿠션은 60수 새틴 프린트 원단으로,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케빈 베개 커버 3만5천원 **소프라움**, 계단 위쪽의 오렌지 컬러 모리 쿠션은 영국 수입 제품. 가격 미정 **에원**, 그레이 쿠션 옆의 오렌지 색상 다브 쿠션 6만6천원 **다브**, 계단 맨 위쪽의 역동적인 말이 그려져 있는 파니시 레드 쿠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에 걸린 소파 담요는 비러브드 인디아(Beloved India), 가격 미정 **에르메스**, 맨 오른쪽 아래의 말 모양의 문진 가격 미정 **에르메스**, 바로 옆의 말이 그려져 있는 양초 가격 미정 **에르메스**, 계단 바로 아래의 둥근 의자는 찰스 임스의 임스 월넛 스톨, 1백61만원 **인노비드**, 화이트 컬러의 철제 다리 의자는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의 '세븐 체어(Seven Chair)', 1백7만원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by 에이투스**, 의자 위 오렌지 글씨가 프린팅되어 있는 다브 쿠션 3만3천원 **다브**, 바닥에 깔린 카펫은 인도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제품으로 컬러풀한 색상과 보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멋스럽다. 100% 울 소재, 170X240cm, 95만원 **까네**.

A SIMPLE STUDY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책상과 의자에 나무 질감이 느껴지는 파티션, 시계, 책상, 조명 등의 질감도 통일감 있게 매치하고, 여기에 패브릭 의자의 편안함을 더해주면 가장 갖고 싶은 공간인 시크한 사재가 완성된다.

장 푸르베가 디자인한 스페셜 에디션 '컴파스(Compas)' 탁자 5백94만원 **비트라**, 함께 매치한 의자는 장 푸르베가 디자인한 스페셜 에디션 '포테일 디렉션(Fauteuil Direction)', 4백14만원 **비트라**, 탁자 위의 찰스 임스의 '임스 버드', 30만원 **비트라**, 그 옆에 놓인 것은 아르마(Arma) 앨범, M 사이즈 화이트 2만8천원 **프랑프랑**, 송이자가족 액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스탠딩 달력은 엔조 앙리가 디자인한 '티모르', 가격 미정 **다네제 말라노 by 루밍**, 조명 스탠드는 '스칸들링 테이블(Scantling Table)', 1백34만원 **두오모**, 왼쪽의 찰스 & 레이 임스의 '임스 폴딩 스크린'은 3백35만원 **인노비드**, 벽에 걸린 시계는 조지 넬슨의 '선 플라워', 지름 75cm, 1백78만원 **비트라**, 오른쪽 아래의 제품은 엔조 앙리가 디자인한 '인아테사 휴지통', 26X41cm, 7만8천원 **다네제 말라노 by 루밍**, 그 옆의 숫자로 불이 들어오는 4개의 육면체로 연결된 탁상시계 가격 미정 **루밍**, 왼쪽 벽에 걸린 작품은 심송욱 작가의 '검은 중력(Black Gravity)' 시리즈. 이 시리즈는 2007년부터 제작되었으며 '마인드셋(Mindset)' 시리즈를 탄생시킨 가장 초기 작업이다. 작품 '검은 중력'은 물리적 무게에 대한 반응과는 다른 심리적 무게 반응에 관한 서술이다.



FIELD OF GOLD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골드 색감이 주는 화려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포인트로 해서 기을 이미지의 세련되고 감각 있는 테이블을 연출한다.

왼쪽 위에 놓인 병은 '셀레티(Seletti)' 골드 포슬린 병. 이탈리아 수입 오브제로 39만원 **At디자인**. 그 왼쪽 옆은 셀레티 골드 모카 포트. 역시 이탈리아 수입 오브제로 31만원 **At디자인**. 사이즈가 넉넉해 물잔, 주스 잔 등 용도가 다양한 나뭇잎 프린트의 유리컵 6만원 **At디자인**. 왼쪽 끝의 미국에서 수입한 유리 화병 가격 미정 **At디자인**. 가운데 놓인 골드 문양의 접시는 프랑스산. 작은 사이즈 17만5천원, 큰 사이즈 22만8천원 **J.L. Coquet by At디자인**. 접시와 컵이 놓인 트레이는 어떤 접착제도 없이 휘어 만든 벤트우드 트레이 8만원 **At디자인**. 오른쪽 위의 골드 버킷은 '카네바(Caneva)'. 가격 미정 **아르마니 까사**. 나뭇잎 모양의 빅 사이즈 접시는 '엘리자베트르(Elizabeth)'. 가격 미정 **아르마니 까사**. 모든 것이 놓인 테이블은 테이블 시리즈(Table Series) A202. 2백34만원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by 에이투스**.

스타일리스트 **최자아** 어시스턴트 **김미금, 임상아**



소프라울 02-850-9110 www.sofraum.co.kr
 다브 02-512-8590 www.dav.kr 예원 02-515-9912 www.yewonaid.com 와츠 02-517-3245 www.wattslighting.com 비에세 02-547-4314 한일카펫 02-547-5828 www.hanilcarpet.co.kr 두오모 02-516-7083 www.duomokorea.com At디자인 02-517-3011 아르마니 까사 02-540-3094 www.armanicasa.com 비트라 02-511-3437 에르메스 02-701-2751 www.hermes.com 까레 02-545-9872 www.kare-korea.com 인노바드 02-515-3660 www.innovad.co.kr 룸링 02-6408-6700 www.rooming.co.kr 에이투스 02-3785-0860 www.innovad.co.kr 프랑프랑 02-2211-0991 www.franfranc.kr 밀라노디자인빌리지 02-516-1743 징흥아트파크 031-837-0020 www.artpark.co.kr

SMART RESORT *Wedding*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을 위해 “남들 하는 만큼, 혹은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라는 슬로건은 이미 그 특별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베라 왕의 드레스를 입어야 하고, 누구나 고급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하며, 또 누구나 유명 연예인의 축하 이벤트를 선물 받아야 하고, 또 누구나 신랑의 팔 굽혀 펴기 같은 이벤트도 있어야 하니 말이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한 외국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정말 끔찍한 악몽과도 같다. 단 위에 올라간 신랑과 신부는 광대 같고, 하객들은 주례사 따위는 관심도 없으며 음식에만 열중한다.”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결혼식, 그래서 인생을 살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결혼식날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결혼식은 없는 것일까? 여기 결혼을 유니크하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결혼식으로 꾸민 한 커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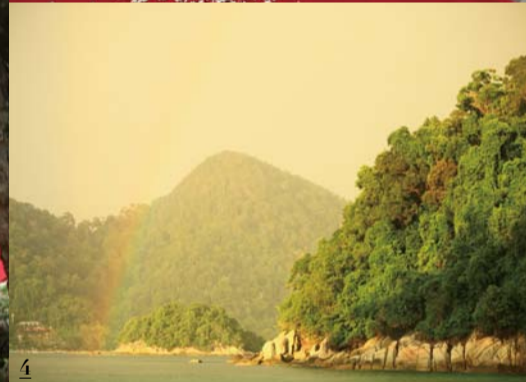
Pangkor Laut Resort

Pangkor Laut Island 32200 Lumut, Perak, Malaysia Tel +60 3 2783 1000 www.pangkorlautresort.com

신랑 이호일, 신부 신예랑. 중학교 친구인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결혼식, 자신들만을 위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행하는 여러 관습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했다. 축의금은 받지 않고, 자신의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해줄 자인들만 초대해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 전 모든 커플들이 의례적으로 행하는 아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스튜디오 샷도 없었고, 패백이니 예단 같은 복잡한 격식도 없었다. 비싼 돈을 들여 2시간 입는 드레스를 빌리는 대신 미니드레스를 맞추었다. 예식장이나 호텔을 빌려 대단위 인원을 초대하는 대신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판코르 라웃의 리조트 예식을 여러 채 빌렸다. 그리고 꼭 참석해야만 하는 친한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말레이시아 여행을 제안했다. 그렇게 선택된 30명의 지인들은 축의금을 내는 대신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며 결혼식에 참석했다. 3백 에이커의 판코르 라웃 섬, 야생동물들의 낙원,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리조트만 자리하고 있다. 그 천국과도 같은 섬에서 아름다운 3박 4일이 펼쳐졌다.

11.26 Reception Party

23일이나 25일에 도착한 하객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노클링이나 정글 트레킹을 즐기기도 하고 숙소의 개인 풀장이나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26일은 결혼식 전날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였다. 이날 저녁 리셉션 디너를 위해 신랑과 신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아침부터 매우 분주했다. 이번 결혼의 총지휘를 맡은 신부의 여동생 신사랑은 하객들의 편의와 결혼식 콘셉트를 면밀하게 계획했다. 모든 하객들은 초대장과 함께 해변에서 신을 수 있는 하얀색 가리신을 선물 받았다. 26일, 점심 식사 후 신랑과 남자 하객들은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떠났다. 그 사이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와 지인들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신부와 그녀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온갖 장신구와 의상을 펼쳐놓고 리셉션 행사를 위해 한껏 단장을 했다. 이날의 드레스 코드는 로베르토 까발리스 타일. 야성적인 동물 패턴이나 강렬한 색상이 프린트된 드레스, 볼드하고 화려한 메이크업과 골드 계열의 장신구만이 이날 허락된 아이템이었다. 남자 하객들 역시 하와이안 프린트나 강한 원색의 드레스 셔츠, 캐주얼한 스니커즈로 멋을 부렸다. 리조트에는 미용실과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상주하므로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리조트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인 피셔맨스 코브(Fisherman's Cove)





9

10

11

12



13

15

14

16



17

18

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신랑과 신부가 도착한 뒤 모두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면서 친구들이 차례로 신랑과 신부를 위해 축하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신부는 바이올렛 이브 닝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편안한 라넨 소재의 화이트 드레스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다. 저녁 식사 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들은 가장 큰 풀장이 있는 에셋에 모여 샴페인 파티를 벌였다.

11.27 Wedding Ceremony

이른 아침부터 신부의 방은 북적였다. 신부와 친구들이 모두 모여 메이크업을 받고 준비해 온 의상을 입었다. 결혼식 테마 컬러는 올 화이트. 하객들은 라넨이나 면 소재의 드레스, 셔츠와 바지, 그리고 실버, 크리스탈 소재의 장신구로 통일해야 했다. 신부는 하얀색 미니 발롱 드레스 위에 실크 소재의 티파니 블루 벨트를 하고 반짝이는 크리스탈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었다. 신부의 상징과도 같은 부케는 가장 흔한 화이트 컬러 대신 정열적인 레드 직약으로 만들었다. 신랑은 여유로워 보이는 아이보리 컬러의 라넨 슈트를 입었다. 주인공인 신부에게 맞추어 이날 데카레이션 컬러 역시 화이트와 티파니 블루, 그리고 레드였다. 하객들 역시 모두 화이트 컬러의 깨끗한 면 소재 옷과 가락신으로 통일했다. 좌석도 신부의 컬러 코드와 동일한 레드 컬러의 장미꽃과 티파니 블루의 리본으로 장식했다. 하객들 중 빨간색 아프리카 구슬 목걸이를 목에 건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이다. 이들 중 빨간색 구슬 목걸이와 파란색 선글라스를 세련되게 착용한 신부의 아버지가 눈에 띄었다. 장미 꽃잎이 뿌려진 레드 카펫을 밟고 하얀색으로 치장한 신부의 들러리들이 입장했다. 이어 신랑과 신부의 입장. 밀레 이시아 교회 목사의 절박한 주례하에 결혼 서약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을 위해 하객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두 사람의 반지를 들고 입장했다. 반지는 티파니 블루 쿠션 위에 얹어 저 빨간색 리본으로 묶여 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모두들 박수를 쳤다. 경건한 세리머니는 어느 순간 감동적인 눈물바다로 돌변했다. 마치 두 사람의 결혼을 대자연도 축복하는 듯 해변 건너편 작은 섬은 영롱한 무지개를 하나 드리웠다. 신랑 신부와 하객들은 저녁 시간까지 해변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 사이 하객들이 결혼식 내내 앉았던 자리는 멋진 야외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테이블을 돌며 앉아 하객들과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샴페인과 와인으로 분위기를 무르익을 때 쫄쫄거리는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 중 몇 명이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날 야외 파티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11.28 Brunch

밤늦도록 파티를 연 신랑 신부와 하객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달콤한 늦잠을 즐겼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판코르 리웃 섬의 정글을 산책하거나 수영을 하며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누리기도 했다. 그리고 곧 있을 브런치 타이밍을 위해 아침 식사는 과일이나 토스트 등으로 매우 간단하게 끝냈다. 11시, 모두가 어제의 웨딩 세리머니 해변에 다시 모였다. 두 사람이 서약을 했던 곳에는 화이트 컬러와 레드 컬러로 장식된 웨딩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갖가지 다양하고도 신선한 재료로 만든 브런치 메뉴들이 사람들을 유혹했다. 브런치 타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웨딩 케이크를 잘라 하객들에게 직접 건넸다. 이와 동시에 두 사람의 결혼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도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예랑과 호일의 웨딩'이라고 프린트된 작은 박스 안에는 전날의 이름다운 신부를 연상시키는 레드와 티파니 블루색 마카롱 과자가 2개씩 들어 있었다. 쌀쌀한 한국의 11월 어느 날. 불과 몇 시간 비행기를 탔을 뿐인데 바다 건너 저편에는 한여름의 파라디스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판코르 리웃 섬에서 보낸 며칠이 영원처럼 이련하게 느껴졌다. 예랑과 호일의 결혼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은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하며 오랫동안 안동경할 것이다. 글 **자은경**

1 11월의 여름, 판코르 리웃 리조트. 2 레드 카펫 위에서 가락신을 신고 입장하는 귀여운 신랑과 신부, 이호일과 신예랑. 3 화이트 컬러의 면이나 라넨 소재 옷을 입고 가락신을 신은 하객들. 4 결혼식 후 버섯가 저편에 무지개가 드리웠다. 5 신들린 링을 들고 입장한 코리, 규. 6 결혼식 전날, 화려한 파티를 위해 치장 중인 신부와 친구들. 7 파티가 열린 곳은 버섯가 테라스를 끼고 있는 리조트 인의 고급 레스토랑, 피셔맨스 코브. 8 신랑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은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떠났다. 9 신부의 미니드레스는 림이크와 제롬, 티파니 블루의 벨트와 브로치는 신부가 직접 디자인하고 루나 디 미엘 웨딩 숄에서 제작했다. 10 강렬한 레드 컬러 슈츠로 포인트를 주었다. 11 신부의 미니드레스와 함께 놓인 신부 들러리들의 면 소재 비치 드레스. 12 신랑 신부는 세리머니 이후 하객들에게 마카롱이 들어 있는 작은 박스를 선물했다. 결혼식에 유일하게 쓰인 티파니 블루와 레드 컬러로 특별하게 제작되었으며 마카롱 박스 위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예쁘게 프린트되었다. 13 결혼 세리머니. 신부의 들러리들이 줄을 맞추어 가장 먼저 입장했다. 14 부케를 던지는 신부와 부케를 받기 위해 모인 들러리. 15 결혼식 콘셉트에 맞춘 레드 컬러의 승용차 위에 블루 리본을 둘렀다. 16 결혼 피로연은 결혼식이 열린 해변에서 열렸다. 맛있는 열대 과일과 음식들, 그리고 흥겨운 음악과 춤이 그 뒤를 이었다. 17 결혼식 다음 날 아침, 결혼식이 열렸던 해변에는 브런치 샴페인과 함께 귀여운 웨딩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18 프라이빗한 생활과 최고의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판코르 리웃 리조트.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는 별이
 총총 빛나는 밤에 홀연 나타난 차를 올라타고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하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짜릿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찬란했던 시절은 절로 동경을 품게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고성에서 결혼식을
 하고 귀족들이 누렸을 법한 호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호젓하게 보내는 허니문을 갈구하는지도 모르겠다.
 고성이 빛어내는 고풍스러운 품격과 아름다운 자연이
 선사하는 풍요로움, 여기에 현대적인 안락함까지 가미된
 곳.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지를 열망하는 연인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설정이 아닐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특별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환상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RELAYS & CHÂTEAUX Honeymoon



누군가와 시간이 부디 느릿느릿 흘러가기를, 혹은 아예 멈춰버리기를 바
 라는 드문 순간의 정점을 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허니문을 떠올리는 이들이
 여전(?) 많을 것이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달콤한 신혼여행에서는 못내 아쉬운 나머지 '해마다 이런 시간을 또 갖자고
 약속하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법. 더구나 가까운 휴양지는 간
 혹 방문할 쟁이라도 낼 수 있지만, 단들이 멀리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훌쩍 떠
 나기에는 현대인의 '헛바퀴 생활'이 그리 순수히 여자를 내주지 않는다. 취향
 이야 각각각색이겠지만 시간이 멈춰버려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과거와 현대의 장점이 조합된, 좀처럼
 경함하기 힘든 독특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소유해보고 싶
 면 썩 괜찮은 후보들이 있다. 수많은 예술인들의 감성을 한껏 끌어낸 프랑스
 남부 지방의 매력적인 고성, 로마인들의 자취가 어린 영국 온천 도시 바스의
 격조 있는 자택, 그리고 아라비아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모로코의 이국적인
 호텔들. 비록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을 초월해 날아가는 과거로의 여행은 '상
 상의 나라에 불과하다고 해도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어'를 주문처럼 읊조리
 게 될 만큼 색다른 매혹의 요소를 지닌 장소들이다.

프랑스 남부의 고성에서 보내는 맛있는 허니문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의 영감, 그리고 미식의 즐거
 움을 한껏 맛볼 수 있는 '올인원식 여행을 원한다면 프랑스 남부의 마을 방스
 (Vence)가 안성맞춤일 것이다. 후기 인상파의 대가 앙리 마티스, 영국의 소
 설가 D.H. 로렌스를 비롯해 수많은 화가와 작가에게 '영감의 보고'로 찬사를
 받았던 이 작은 마을에는 중세의 고성을 개조한 호텔인 샤토 생 마르탱 & 스펠
 파(www.chateau-st.martin.com)가 자리 잡고 있다. 니스공항에서 차
 로 20분 정도 가만 숨이 멎을 만큼 푸른 지중해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절
 벽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등자를 들고 있다. 성이라고는 하지만 장중함보다
 는 옅은 붉은빛 자못으로 덮인 하얀색 건물들의 맵시가 프로방스 특유의 아기
 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풍긴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럽 최고의 호텔
 과 명성 높은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합 룰레 & 샤토(Relais &
 Châteaux)의 회원이 된 지 40년이 생 마르탱의 자랑거리는 많지만 그중에서
 드로 미슐랭 별 2위를 자랑하는 스타 셰프 아닌 프랑케(Yannick Franques)
 의 레스토랑 '르 생 마르탱(Le St. Martin)'은 '발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둘기 요리를 내세운 주방장의 시그니처 메뉴에 호텔 지하 저장고에 저장한
 희귀한 빈티지 와인이나 코냑을 곁들이면 허가 감동할 만한 최상의 호사를 경

험할 수 있다. 소일거리도 꽤 다채롭다. 14헥타르의 넓은 공원을 끼고 있는
 르 생 마르탱은 산책이든 운동이든 여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천혜
 의 놀이터다. 테니스, 승마, 산악자전거, 트레킹, 골프, 다이빙, 세일링 등
 수상·육상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몸이 지쳐가나 노곤하다면 최고 수
 준의 마사지 서비스를 자랑하는 '라 프레리 스파'를 찾기도 된다. 파리에서 며
 칠 시간을 보낸 뒤 이곳을 찾기도 좋지만, 사실 생 마르탱 인근만 대략 둘러봐
 도 '필수 관광지인 니스와 칸을 위시해 수많은 예술가의 애정을 담백 받아온
 예쁜장한 마을들이 발길을 유혹한다. 프랑스의 국민가수이자 배우 이브 몽탕
 과 시몬 시노레가 악혼식을 올리고, 영화배우 리에노 다카포리오가 데이트
 를 즐겼다는 '라 콜롬브 드르(La Colombe d'Or)' 호텔이 위치한, 중세의 느
 낀이 물씬 나는 마을 생폴드방스도 그중 하나다. 니스에서 해안을 따라 달리
 는 운치 있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역에 내려 해변을 산책하거나
 일광욕을 하려면 피카소, 마티스, 모딜리아니 등 프로방스 지방을 사랑한
 과거의 대가들처럼 놀라운 창조적 영감을 받을지도 모른다.

19세기 영국 귀족처럼 즐기는 로마풍 온천
 '바스(Bath)'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잉글랜드의 유서 깊은 도시 바스는 온천으
 로 유명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국의 '보물' 같은 전
 원 도시이다. 일찍이 바스의 수질을 알아본 고대 로마인들이 미네라바 신전
 과 함께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정교한 목욕탕 시스템을 구축해 온천
 휴양지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로마인들이 떠나면서 잠시 관심에서 비켜났던
 바스는 18세기에 땅속 깊이 묻혀 있던 로마시대 유적 2천 점이 발굴되면서
 다시 영국의 상류층이 즐겨 찾는 온천 도시로 부상했다. 로마시대의 기념비
 적인 유적은 물론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고아한 건축물들을 둘러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조지 왕조 시대의 웅장한 테라스 거리, 30채의
 고급 타운 하우스를 180m 길이에 걸쳐 초승달 모양으로 연결한 건축물 '로
 열 크레센트'는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영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19
 세기 여성 문화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집을 개조해 만든 '제인 오스틴 센터'도
 눈여겨보라. 이 목가적 정취 가득한 도시는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
 어져 있어 기차를 이용하면 두 곳을 다 방문하기도 쉽다. 바스에서 영국의 귀
 족들이 그토록 예찬해왔던 로마풍 스파와 함께 하는 진정한 '럭셔리 휴식'을
 느껴보고 싶다면 류크남 파크 호텔 & 스파(www.lucknampark.co.uk)
 를 주목할 만하다. 숲 속에 자리한 구조와 짜임새가 남다른 영국식 정원이 딸
 린 19세기의 대저택을 기반으로 한 이 고전적인 호텔은, 역사적 품격이 그대

1 아프리카 특유의 이색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모로코. 이곳의 사하라 사막 호텔 사유 야영지에서 보내는 '돌만의 캠핑'은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2, 4, 6 영국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로마시대부터 이어져온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류크남 피크 호텔 & 스파. 3 모로코 최고의 경치를 뽐내는 마라케시에 자리 잡은 로맨틱한 고성 호텔 빌라 데 오랑저(Villa des Orangers). 5, 10, 11 마치 램프의 요정이 존재하기라도 하듯 고객을 위한 세심한 접대가 이루어지는 모로코의 아름다운 고성 호텔 다르 아흘람(Dar Ahlam). 푸른 오아시스 옆 아라비안나이트 속 붉은 요새 같은 자태가 인상적이다. 7, 8, 9, 12, 14 중세의 고성을 개조한 프랑스 코트 다쥐르 지역, 방스의 고혹적인 호텔 사토 생 마르탱 & 스파.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선사해 온 프랑스 남부의 눈부신 풍경과 함께 최고의 마식을 누릴 수 있다. 13 마라케시에 위치한 사막의 오아시스에 세운 무어 양식의 고성, 차르바(Charbagh). 15 한국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나라, 모로코. 사진은 질 높은 가죽 신지이자 무역 도시인 페즈의 리아드 페즈(Riad Fes).



로 남아 있다는 유럽 최고의 스파를 경험하면서 이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잉글랜드 요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류크남 호텔의 스파는 <더 굿 스파 가이드>에서 '영국에서 가장 좋은 스파'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권위 있는 비짓 브리튼 골드 어워드(Visit Britain Gold Award)를 수상할 정도로 검증된 곳이다. 이곳엔 하이드رو 테라피 풀, 자수정 방, 아로마 증기 사우나, 20m 길이의 실내 풀 등이 구비돼 있다. 미술 갤러리 하나를 획득한 피크 레스토랑(The Park Restaurant)도 이 호텔의 자부심이다. 신선한 지방 특산물을 선호하는 요즈음 추세에 맞춰 호텔의 발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요리에 활용한다. 이 밖에 초급에서 고급까지 수준별로 승마 강좌를 받을 수도 있고 사냥, 사격, 양궁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라비안나이트의 꿈, 모로코의 낭만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 <카사블랑카>의 무대인 아프리카의 모로코. 특히 이 나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아틀라스 산맥과 남쪽의 사하라 사막 사이에 자리 잡은 우와라자트(Ouarzazate)는 <글래디에이터>, <스타워즈>, <클레오파트라>,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 주옥같은 영화들의 촬영지로 낙점받았을 만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사막이 시작되는 길목에 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다르 아흘람(www.maisondesreves.com/nosmaisons_darahlam)은 1920년대에 지은, 북부 아프리카 스타일의 고성 호텔이다. 강렬한 햇빛과 바람을 견디며 오랜 세월을 버텨온 '공력'이 말해주듯 약간의 황량한 느낌이 들면서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 대추나무와 오래된 아자수를 배경으로 한 이 성의 내부에 들어가보면 구불구불하고 좁은 계단, 아담한 방, 은밀하게 자리 잡은 구석구석의 아늑한 공간들, 그리고 백만 개는 돼 보일 정도로 공간을 빼곡히 채운 등불(lantern) 등 이색적인 요소가 흡사 아라비안나이트의 미궁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준다. 다르 아흘람은 "이곳을 다니다가 잊고 싶은 모로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준 높은 서비스로 유명하다. 램프의 요정처럼 고객이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아도 세심한 접대가 이뤄진다. 길게 드리는 아자수와 색색의 실크 쿠션, 아라비아 스타일의 멋진 카펫, 모로코산 와인, 사막풍 캐노피 등의 요소가 아시아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더없이 이국적인 낭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릴레 & 샤토에 속한 호텔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전문 여행사 투르 디 메디치의 사한정 대표는 "터키식 목욕탕이나 오아시스 농장 등 이색 경험이 많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사하라 사막의 호텔 사유 야영지에서 하는 '돌만의 캠핑'을 꼭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오롯이 '서로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로맨스의 상징'인 카사블랑카, 질 높은 가죽 신지이자 무역 도시인 페즈, 모로코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마라케시 등 다른 지역들도 '섭렵'하려는 조언도 귀담아들 만한데. 이슬람 문화의 채취를 돕는 느낌도 있는 모로코의 '고성 투어'를 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아라비아의 공주와 왕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에디터 고성연

릴레 & 샤토(Relais & Châteaux)

지역별 특색과 전통이 살아 있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럭셔리 호텔과 레스토랑의 연합이다. 1954년 프랑스 8개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5백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럭셔리 호텔과 레스토랑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홈페이지 www.relaischateaux.com

투르 디 메디치(Tour di Medici)

이탈리아의 문화적 부흥을 이끌었던 명문 메디치가의 창조적 예술혼을 추구하는 국내 VIP 전문 맞춤 여행사. 문의 02-849-8580, www.tourmedici.com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텔 클리얼리 코렉티브 디크 스킷 솔루션** 밝고 투명한 피부는 신부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피부 자극 없이 피부 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닝 세럼으로 관리해볼 것. 인티클러스터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이 세럼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비타민 C 성분인 액티베이트 C, 화이트 버치 추출물, 적약 추출물로 구성된 강력한 투명 복합체가 피부에 빠르게 작용해 눈에 띄게 고른 피부 톤과 윤기를 선사한다. 30ml 8만6천원. 문의 080-022-3332

클리코스 바스트 뷰티 퍼밍 로션 가슴 라인이 부각되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했다면 탄력 있는 가슴 선을 가꿔줄 퍼밍 로션을 눈여겨보자. 귀에서 추출한 당 성분이 가슴에 가벼운 막을 형성해 마치 브리를 착용한 듯 가슴 처짐을 방지하고, 부수아 성분이 콜라겐의 생산을 자극해 가슴을 붓긋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겨드랑이에서 목선까지 U자로 끌어 올리듯 마사지에 발라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50ml 7만5천원. 문의 080-542-9052

아모레퍼시픽 라인 레볼루션 트라인 트리트먼트 세럼 동인의 필수 조건인 탄력 있고 볼륨감 넘치는 페이스 라인은 신부들의 로망. 얼굴 라인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 세럼으로 어려 보이는 페이스 라인을 완성하자. 주름 개선에 탁월한 네 가지 아미노 보타나겔에서 추출한 라인 리페어링 콤플렉스™를 적용해 피부 속 약한 탄력 성분을 채워 올리고 주름의 깊이와 굵기, 얼굴 라인을 케어해 얼굴 윤곽선을 생기 있고 자연스럽게 가꿔준다. 30ml 38만원. 문의 080-023-5454

리리코스 마린 퍼펙트 바디 웨이퍼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탄력 없는 팔과 늘어진 복부다. 운동 전후 보디 슬리밍 제품을 발라 마사지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슬리밍 효과가 탁월한 카페인 성분을 담은 보디 웨이퍼 젤로 불필요한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부기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콜라겐 복합 성분인 피부 탄력을

강화한다. 셀룰라이트가 쉽게 축적되는 팔, 복부, 엉덩이 부위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꼬집듯 마사지해주도록. 200ml 5만5천원. 문의 080-023-5454

에스티 로더 퓨어 칼라 네일 락카 60호 웨딩 링을 끼워주는 낭만적인 순간을 위해 핸드 케어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손이 건조할 때마다 핸드크림을 수시로 바르는 것은 기본. 손톱은 0.5mm 이내로 다듬고 여성스러운 라인을 원한다면 라운드 모양으로, 깔끔한 셰이프를 원한다면 스퀘어 모양으로 다듬어줄 것. 과한 컬러나 장식은 배제하고 베이지, 누드 핑크, 피치, 골드 등의 누드 톤 베이스의 에-넬을 발라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보자. 9ml 2만2천원. 문의 02-3440-2772

슈에무라 퓨레노베이트 인텐스 포어 퍼펙팅 솔루션 웨딩 날 번들거림 없이 보송보송하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과도한 피지를 잡아주고 넓은 모공을 케어해줄 모공 전용 스킨케어 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피지 분비량이 많아 트러블이 쉽게 생기는 지성 피부라면 결혼 전 2~3개월간 꾸준히 써보길 추천한다. 지성 피부를 위한 모공 세럼으로, 인티베타데리아 효과가 뛰어난 수련 추출물을 함유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모공을 조여 번들거림과 트러블을 막아준다. 30ml 5만2천원. 문의 080-022-3332

겔랑 오이드 인메리얼 악셀세널 컴플리트 케어 스파 수면 마스크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신부에게 간편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면 마스크 팩이 제격. 생크림같이 부드러운 텍스처를 자랑하는 이 크림 마스크는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오이드 버터로 만들어 혼자서도 전문 스파 케어를 받는 듯 달콤하고 부드러운 경향을 할 수 있다. 천연 다당류가 미세 순환을 촉진해 비르는 즉시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콩 단백질 추출물과 식물성 퍼밍 성분이 피부 조직을 조여주어 뛰어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 75ml 46만5천원. 문의 02-3438-9627

블리스 트리플 옥시젠 인스턴트 에-치이징 아이 마스크 결혼식 당일 아침, 통통 부은 처치한 눈가가 신경 쓰인다면 눈가에 즉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줄 산소 아이 마스크의 힘을 빌려보자. 산소 성분이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없애 눈을 맑게 정화하고 미네랄, 구연산, 트러글리세리드 등의 풍부한 수분 성분이 눈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사용하면 콜링 효과로 부기 완화에도 효과적. 4개입 9만3천원. 문의 02-514-5167

캐라티즈 마스크 포스 아키텍트 웨딩 케어에선 완벽한 피부만큼 탄력 있고 부드러운 모발 관리도 중요하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헤어 마스크 팩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문가의 손길 이 부럽지 않은 건강한 헤어를 가꿀 수 있을 것. 세 가지 모발 재생 활성 성분이 결합해 극도로 손상된 모발까지 케어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모근부터 모발 끝까지 힘을 전달해 모발을 튼튼하게 해줄과 동시에 손상 모발을 회복시킨다. 200ml 6만원. 문의 080-099-5000

블랑티스 투스 화이트닝 하얗고 깨끗한 치아는 신부의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 전문 미백 케어를 할 시간이 없거나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집에서 쉽게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 미백 키트에 주목하도록. 치아나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 컬러를 한 단계 이상 밝게 해주는 치아 미백제로, 1일 2회 이상 사용하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제가 건조된 후에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하다. 4gX4개입 3만원. 문의 080-765-1980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업티메이트 리프트 에이자-코렉팅 아이 크림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쉽지 않은 눈가의 잔주름, 다크서클은 얼굴 전체를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력한 리프팅 효과는 물론 플라티넘 색소 입자를 담아 탄력 있고 생기 있는 눈가로 가꿔주는 아이 크림. 아이 브라이드 추출물 성분을 함유, 민감한 눈가를 진정시켜 활력 있는 눈매로 가꿔준다. 15ml 20만원. 02-3440-2772 에디터 권유진

BRIDAL Beauty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신부를 위한 간편한 수면 팩부터 어려 보이는 페이스 라인을 가꿔줄 세럼, 가슴을 탄력 있게 케어할 퍼밍 로션, 새하얀 치아를 책임질 미백제까지, 성스러운 그날의 여주인공이 될 신부를 위해 빠르고 집중적인 효과를 선사할 인스턴트 뷰티 케어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골든듀 모닝듀 뉴웨이브 골든듀에서 '모닝듀 뉴웨이브' 팬던트를 선보인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이슬방울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흔들리는 각도에 따라 금속의 단면이 리드미컬하게 빛나는 것이 특징이다. 골든듀 특유의 우아한 곡선이 돋보이는 이 팬던트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와 심플한 핑크 골드 2가지로 출시한다. 문의 02-3415-5713

타사키 스틸레 커플 링 타사키에서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레 커플 링'을 제안한다. 연인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플래티넘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전체가 플래티넘으로 이루어진 스타일과 다이아몬드를 한쪽만 세팅한 파베 라인, 양쪽 모두를 세팅한 듀얼 파베 라인으로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 문의 02-3461-5558

티파니 셀러브레이션 링 티파니가 웨딩 시즌을 맞아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셀러브레이션 링을 소개한다. 다이아몬드 외에 핑크·블루 사파이어와 옐로, 로즈 골드 등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한 링을 여러 개 겹쳐 착용하면 화려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간직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문의 02-547-9488

해밀턴 카키 엑스 패트롤 해밀턴은 창립 1백20주년 이 되는 2012년을 맞아 파일럿 워치 '카키 엑스 패트롤 (Khaki X-Patrol)'을 선보인다. 새로운 무브먼트 H21을 탑재해 고도의 정확성과 향상된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자랑한다. 높이, 무게, 고도, 양 등 미터법과 아드-파운드법의 단위를 넘나드는 독특한 단위 변환 기능을 추가했다. 문의 02-3149-9594

위블로 빅뱅 보아 뱀 위블로에서 '빅뱅 보아 뱀' 워치를 2012년 바젤 월드에서 선보였다. 자만겨울 레오파드 뱀의 선동적인 인기에 힘입어 출시한 워치로, 스트랩과 다이얼에 파이톤 가죽으로 장식해 글래머러스한 매력을 보여준다. 다이얼에는 8개의 0.14캐럿 다이아몬드를



JEWEL



세팅했으며, 베젤에는 차보라이트, 투르말린, 그린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문의 02-3279-9074

부쉐론 크레이지 마줄리 워치 부쉐론에서 '크레이지 마줄리 워치'를 제안한다. 베젤 컷 다이아몬드 위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동적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줄리 워치의 특징은 다이얼로, 다이아몬드와 유색 보석을 총총하게 세팅한 레이스 위에 리본 모티프를 장식했다. 스위스 정통 워치 메이커 제라르드페리고에서 제작한 오토 매케니컬 무브먼트 GP4000을 탑재했다. 문의 02-543-6523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불가리를 대표하는 아이콘, 세르펜티(Serpenti) 컬렉션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주얼리 워치와 브레이슬릿, 링으로 구성된 기존 컬렉션에 이어링과 네크리스를 추가했으며, 루벨라이트 유색 스톤을 사용해 더욱 우아한 느낌이다. 뱀의 비늘에서 영감을 받은 네크리스는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와 루벨라이트 비즈, 문 퀴츠를 번갈아 배치해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문의 02-2056-0171



SHOWROOM

ETC



럭셔리빙 헬레인 침대 기획 행사 럭셔리빙은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100% 천연 리넨 소재로 만든 '헬레인' 침대를 매트리스와 함께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고, 쿠션 등 시은품을 증정하는 것. 더불어 소파, 의자, 탁자, 조명 등 다른 가구 품목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9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문의 02-542-8242

IFC Mall 오픈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IFC Mall'이 8월 말에 오픈한다. 국내외 SPA 브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레스토랑,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 서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02-6333-5771



랑콤 조 말론 런던

아모레퍼시픽

랑콤 뷰티 컬래버레이션 비디오 랑콤에서 뷰티 아이콘 유진과 함께 여름, 가을 메이크업 룩을 담은 비디오를 완성했다. 랑콤의 뷰티 디렉터로 발탁된 유진은 21가지 다양한 컬러의 아이섀도우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프렌치 감성을 담은 아이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메이크업 노하우가 담긴 컬래버레이션 동영상과 화보는 랑콤 페이스북과 웹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97-9698

아모레퍼시픽 ABC 세럼 대용량 사이즈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출시 5개월 만에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등극한 '올 데이 밸런싱 케어 세럼'의 70ml 대용량 사이즈를 출시한다. 자자나무 수액을 포함한 127가지 아시안 보태널 성분 비피루 리듬을 최적화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대용량 사이즈는 기존 제품보다 약 20% 할인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조 말론 런던 프레스 행사 조 말론 런던이 8월 말 론칭을 앞두고 프레스와 VIP 고객을 초청하는 행사를 영국 대사관에서 진행했다. 본사의 라이프스타일 디렉터 데이 와이드(Debbie Wild)는 조 말론 런던 향수의 특징인 향의 믹스 매치, 보디션과 향을 레이어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룸 스프레이와 캔들 등 홈 프레그런스 라인으로 자신의 향을 물들이는 센트 서라운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문의 02-3440-2750



FASHION

질리아니 지울리아 핸드백 질리아니에서 2012 F/W 시즌을 위한 지울리아(Giulia) 핸드백을 제안한다. 최상급 파이톤을 질리아니만의 혁신적인 피니싱 기법으로 가공했으며, 밑바닥에 자연스러운 주름을 잡아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체인 스트랩에 가죽을 덧대 견고함을 실었다. 문의 02-6905-3752

클라린스 V라인 트리오 클라린스에서 매끈한 얼굴 라인을 위한 V라인 트리오를 제안한다. 눈기를 맑고 또렷하게 만드는 아이 세럼 '디파이닝 아이 리프트', 수분 정체에 의한 얼굴의 부기를 제거하는 '췌아밍 페이스 리프트 랩', 18초마다 1방씩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아이템 '췌아밍 페이스 리프트 V 에센스'로 구성했다. 문의 02-3014-2916

HAMILTON

THE AMERICAN BRAND SINCE 1892



**KHAKI
X-PATROL**



NEW STORE OPENING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충청점 LOTTE DFS COEX
 갤러리아 대전점 센터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 강남점 권역점 광복점 광주점 구리점 김포공항점 노원점 대구점
 대구영플라자점 대전점 동래점 미아점 부산점 분당점 상인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안산점 영등포점 울산점
 인천점 일산점 잠실점 전주점 중동점 창원점 청량리점 청주영플라자 평촌점 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킨텍스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AUTOMATIC - SWISS MADE

WWW.HAMILTONWATCH.COM

THE SWATCH GROUP (KORCHA) Ltd. A COMPANY OF THE SWATCH GROUP Hamilton Korea. 02.3149.9593